

# 歐美音韻理論의 受容과 國語音韻論 \*

崔 明 玉\*\*

## I. 서 론

국어의 음운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다. 15세기 중기에 훈민정음의 창제자들이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 전개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국어음운이론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역사는 5백여년이나 된다. 그러나 우리의 독창적인 음운이론은 그것으로 끝나고, 20세기초 주시경(周時經)에 이르기까지 국어의 음운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국어 음운론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기 이후의 일이다. 그로부터 50여년 동안에, 국어의 음운에 대한 연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발전의 바탕이 된 것은 일반적으로 구미언어학의 이론과 방법이었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과 방법, 프라그학파의 언어학이론과 미국의 기술언어학이론을 포함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추상음운이론과 구체음운이론, 자립분절음운이론, 어휘음운이론 등을 포함하는 생성음운론의 이론과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일반언어학의 이론은 대부분의 언어들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언어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언어 연구를 위하여 일반언어학의 이론과 방법을 수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당연하다. 그러나 일반언

\* 이 글은 1996년에서 1998년까지에 행해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영역 과제(연구책임자 이기용)『서양언어학의 수용에 따른 한국언어학의 변용』(1999년도 보고)의 일부로 보고된 것이다.

\*\* 서울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학의 이론은 개별언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언어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대상 개별언어의 특수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언어학의 이론은 개별언어들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언어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언어학의 이론은 개별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또 수정된다. 현존하는 일반언어학의 이론은 거의 구미에서 창안된 언어학의 이론인데, 그것은 대개 인구어(印歐語)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수정되어 왔다. 인구어는 굴절어로서, 명확히 구별되는 어미들을 어간 뒤에 통합시켜 그들 어미로써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교착어와는 그 구조와 형식이 매우 다르다. 이 점에서 인구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미언어학의 이론이 교착어의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구미언어학이론의 수용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국어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성과(成果)를 따져 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sup>1)</sup> 그런데 그러한 작업은 언어학의 전 분야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한 사람이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 그리므로 여기서는 논의의 범위를 국어의 음운론으로 한정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구조주의 언어학 이후의 구미언어학의 이론 중 음운이론이 국어의 음운연구에 미친 영향과 그 성과를 논함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다만 이 글에서 논의될 구미의 음운이론은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 예컨대 생성음운이론 내의 비단선음운이론의 경우에, 여기에는 자립분절음운이론, 음절음운이론, 율격음운이론, 어휘음운이론, 운율음운이론, 불완전명시이론, 자질 기하학이론, 최적성이론과 같은 많은 이론이 포함된다. 이들 각각의 음운이론은, 비록 수적(數的)인 차이가 있기는 해도, 국어의 음운연구

1) 지난 3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어학은 팔복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국어학이 언어학으로서 구미언어학의 이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李基文 1980 : 64). 그 동안의 연구 결과는,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또는 분야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평가되었고 또 평가를 통하여, 수용된 언어이론과 국어의 연구 결과가 관련지어 거론되기도 하였다(金完鑑 1978, 李基文 1977, 南基心 1977, 金完鑑·李秉根 1979, 李秉根 1982, 宋喆儀 1982a, 1985, 崔明玉 1989, 李相億 1992, 文洋秀 1996 등 참조하기 바람).

에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 점에서 그들 음운이론은 모두 이 글의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음운이론이 국어의 음운연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음운이론이 상당한 수의 국내의 음운론자들의 국어 음운연구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그들 음운이론이 모두 이 글의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 중에는 극소수의 연구자에 의한 몇 편의 논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론은 국어 음운연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 논의될 구미의 음운이론은 어느 정도의 국내의 국어 음운론자들의 국어 음운연구에 영향을 준 것에 한정한다.

이 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글의 성격상, 구미의 각 음운이론을 개관하고, 다음에 각 음운이론의 수용과 그에 의한 국어의 음운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그 다음에 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미 음운이론이 국어의 음운연구에 미친 영향과 그 성과 및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 II. 구조주의 음운이론과 국어 음운론

### 1 구조주의 음운이론의 개관

여기서 말하는 구조주의 음운이론은 Saussure(1915/59) 이후부터 Halle(1962)에 이르기까지의 유럽과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을 가리킨다.

#### 1) 유럽의 구조주의 음운이론

여기서 논의대상이 되는 유럽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은 국어 음운론에 영향을 미친 Saussure의 음운이론과 프라그(Prague)학파의 음운이론 그리고 Martinet의 통시음운이론이다.

##### (1) Saussure의 음운이론

19세기의 역사·비교언어학은 언어를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언어사실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조어를 재구하여 비교되는 언어들의 친족관계를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언어변화였으며 연구자료는 문헌 자료였다. 친족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언어학자들(특히 소장문법학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들이 가진 비교 가능한 형태를 문헌에서 발견하고 그것들로 부터 언어변화의 규칙성을 귀납한 다음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언어형태를 재구할 수 있는 음운법칙을 공식화하였다. 그들은 음운법칙을 자연법칙과 같이 기계적이고 무예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결과 개별적인 언어현상을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향에 의하여 언어는 음성적 개체로 취급되고 개체의 역사적 변화만이 관심사가 되었다(김윤한 1980: 111-13).

Saussure(1959/16)는 소장문법학자들이 언어의 형태(音)와 개체의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언어를 언어로서, 언어를 체계로서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언어의 체계를 빠를(parole)과 랑그(langue)로 나누고 이 둘이 합해져서 인간의 언어활동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언어활동에서 빠를은 개인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며 랑그는 사회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 하여 인간이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랑그의 체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랑그의 실재를 강조하였다(pp. 18-20).

그는 또, 언어의 변화와 일정한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현상이므로, 언어연구에서 통시적연구와 공시적연구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언어변화를 체계의 전면(全面)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어느 것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통시적연구는 체계를 떠나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외는 달리, 언어요소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엄격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언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공시태에서만이 가능하므로, 그는 공시적연구의 우위성을 강조하였다(pp. 79-100).

랑그와 ‘공시태(共時態)’와 더불어, 그는 현대언어학의 기본개념인 ‘구조(structure)’의 개념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전적으로 구체적인 요소들의 대립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이며(p.107) 언어체계는 일련의 음의 차이가 일련의 관념의 차이와 결합된 것이다(p.120). 언어를 구성하는 어떤 요

소는 체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체계의 일부가 됨으로써 비로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 의미와 가치는 오직 체계 속에서 대립을 이루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결정된다(pp.115-22). 이와같이 Saussure는 언어연구에서 모든 언어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언어를 내재적인 관련체계로 볼으로써 당시의 모든 다른 언어이론을 극복하였으며 언어를 언어로서, 언어를 체계로서만 이해하려는 새로운 언어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음소’를 ‘청각영상과 조음운동 즉 청취된 단위와 발화된 단위의 합(sum)’이라고 정의하며 그 둘은 서로를 조건짓는다고 하였다(p.40).

## (2)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

‘음소’란 무엇보다도 먼저 대립적·상대적·허정적(negative 虛定的)인 실체라는 Saussure의 정의에서 출발한 프라그의 음운이론은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이상과 같은 Saussure의 구조언어학의 근본개념을 이론과 방법론에서 새롭게 발전시킨 것은 프라그학파였다. 1926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인 프라그에서 결성된 이 학파의 강령(綱領)은 Prague Linguistic Circle(1929)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에 의하면, 언어는 ‘기능의 체계’(a functional system)이며 기능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어떤 목적에 맞는 표현수단의 체계’이다. 어떠한 언어 사실도 그것을 포함하는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p.77). 언어체계의 본질은 완전한 자료 산출과 직접 경험이 가능한 현재의 언어를 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장 잘 밝혀질 수 있다 (p.78).

먼저 공시음운이론의 경우에, 그 기본과제는 (1) 음운체계를 설정하고 음소들간에 존재하는 관계(relations)를, 특히 음운론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 (2) 대상 언어에서 실현되는 음소들의 결합(combinations)을 밝히는 것, (3) 대상 언어에서 서로 다른 음소들과 음소결합들의 기능부담량(functional load)을 밝히는 것, (4) (슬라브언어라는 한정이 있지마는) 형태음운론적 기술(morphonological description)을 하는 것이다(pp.83-84).

이들 과제 중 (1)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Trubetzkoy(1939/69)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음소는 언어의 체계 속에서의 기능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만족스럽게 규정될 수 있다(p.41)고 하면서, 같은 환경에서 교환(commutation)에 의하여 의미차이를 일으키는 소리를 ‘음소’라고 규정하고, 같은 환경에서 발생되지 않는 두 소리는 한 음소의 결합변이음이라고 하였다.<sup>2)</sup> 그리고 둘 중 하나만 발생하는 위치에서 서로 인접하여 발생하는 두 소리는, 같은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음소라고 하여 음소목록의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pp.46-50).

음소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그는 ‘대립(opposi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1) 전체 대립체계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 따라서, (2) 대립을 이루는 요소들간의 관계에 따라서, (3) 변별력의 정도에 따라서 대립을 분류하였다(pp.66-83). (3)에서 ‘중화(neutralization)’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그것은 프라그음운론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것이다.

Trubetzkoy는 모음적 속성(properties)과 자음적 속성, 그리고 운율적 속성을 가지고 각각 모음적, 자음적, 운율적 대립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음소들을 체계 속에 배열하였다. 이렇게하여 그는 서로 다른 많은 언어들의 모음체계와 자음체계, 그리고 운율체계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그의 목적이 변별적인 음성대립을 포착함으로써 ‘체계들의 구조에 대한 일반법칙(general laws)’을 찾아내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Jakobson은 변별적 자질이론을 발전시켰다.

한편, 통시음운론의 경우에, Prague Linguistic Circle(1929/83 : 78)는, 통시음운론의 방법에 대하여, 공시적 언어학에서 언어 체계의 요소들이 그들의 기능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과 같이, 언어의 변화는 변화를 겪게하는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올바로 인식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언어의 변

2) 그는 또 음소를 “한 음성 단위의 음운론적으로 타당한 속성들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p.36).

3) 여기서 말하는 일반법칙이란, 예컨대, 비고정적 액센트(free accent)는 비고정적 장모음(free quantity)과 결합될 수 없다거나 비고정적 액센트와 장모음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예. 독일어)에서, 장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상의 차이로써 설명된다 는 것, 음색대립(혀의 위치대립)은 두 가지 즉, ‘원순모음 : 비원순모음’의 대립과 ‘후설모음 : 전설모음’의 대립 뿐이라는 것 등이다.

화는 흔히 그 언어의 체계와 체계의 안정화(stabilization), 체계의 재구성(reconstruction) 등에 기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통시적 연구는 체계와 기능의 개념을 배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개념이 고려되지 않으면 그 연구는 불완전하다고 하여, 공시적 언어상태와는 달리 통시적 언어상태를 비체계적이라고 한 Saussure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통시적 방법, 특히 역사음운론의 방법은 Jakobson(1931)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역사음운론의 제일 원칙은 “모든 부분적 변화(modification)는 그것들을 포함하는 체계의 기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122). 음운변화는 그 언어의 체계 속에서의 그 역할을 밝힘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일단 음운변화가 일어나면, 음운체계 속의 무엇이 변하였는가, 어떤 음운론적 차이가 상실되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새로운 음운론적 차이가 생겼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만약 음운론적 대립의 목록은 바뀌지 않았다면 개별적인 대립의 구조가 바뀌었는가, 다시 말하면 다른 대립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또는 그것의 변별력에 있어서 어떤 대립의 위치가 변하였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체계 속의 각 음운 단위들은 해당 음운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그 후의 체계를 이루는 모든 다른 단위들과의 상호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음성변화와 음운변화는 구별되어야 하며 음운변화에는 다음 여섯가지의 유형이 있다. 음운화(phonoelization), 비음운화(dephonologization), 재음운화(rephonologization), 음소 결합체에 있어서의 변화(예. ii > i), 한 음소의 분열(예. 이중모음화), 음소결합의 단일 음소화 (예. ps>p')가 그것이다.

Jakobson과는 달리, Martinet는 음운변화의 요인과 음운변화가 음운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에 주관 관심을 가졌다. 그가 통시음운론에서 특히 강조하려한 것은 다음 네 가지이다. 그것은 (a) 기능부담량, (b) 음소들 간에 음성적 간격의 유지 필요성, (c) 균형 잡힌 체계 지향 경향, (d) 균형 잡힌 체계 지향 경향을 방해하는 생리적 요인이다.

(a) ‘기능부담량’이란 음운 대립의 이용도(利用度)를 의미하는데, 음운은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변별적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은 대립은 그것이 낮은 대립보다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고 그는

보았다.

(b) 언어는 전달력을 최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음소들 간의 음성적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음운의 변이음역(變異音域) 즉 산포영역이 체계 내의 인접 음소의 산포영역에 가까워지면, 그 두 음소의 구별이 어렵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두 음소 간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인접 음소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 쪽에 있는 음소가 멀어진 음소에 다가가거나 할 것이다. 이것이 음소변화와 음소추이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c) ‘균형 잡힌 체계 지향 경향’은 Prague Linguistic Circle(1929/83 : 78)에서도 막연하게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Martinet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균형 잡힌 체계 지향의 경향을 ‘경제성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즉 음소 간의 대립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여적 자질의 수가 적은 체계는 관여적 자질의 수가 많은 체계보다는 경제적인데, 관여적 자질의 수가 가장 적은 체계는 균형 잡힌 체계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체계가 균형을 잃게 되면, 다시 균형 잡힌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음소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끝으로 (d) ‘균형 잡힌 체계 지향 경향을 방해하는 생리적 요인’은 발음기관의 불균형이다. 발음기관에서 후설모음의 조음 가능 영역은 생리적으로 전설모음의 그것보다 짧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모음체계에서 후설모음의 수는 전설모음의 수보다 많다. 한 언어의 모음체계에서 개구도에 의해서 구별되는 후설모음이 둘이나 셋밖에 없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넷 이상일 때에는 그들 음소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후설 고모음이 앞으로 이동하여 전설 고모음화 함으로써 개구도에 의해서 구별되는 후설모음을 셋으로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음소변화나 음소추이가 일어난다.

## 2)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

프라그학파의 음운론과는 달리,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은 인디언 언어를 연구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인디언 언어는 문자를 가지

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 언어를 연구하는 데에는 유럽에서 발전된 역사언어학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공시적인 언어 기술방법을 창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에 유행하던 행동주의의 기본개념을 받아들여 언어의 기술방법을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만들려고 한 언어학자는 Bloomfield 였다. 그의 음운론적 견해는 Bloomfield(1933/61)에 잘 나타나 있다.

그에 의하면, 음소는 “변별적 음성자질의 최소단위(p.79)”, “변별적 자질의 덩어리 또는 다발(bundles)(p.79)”, “의미에서 차이를 일으키는 최소단위(p.136)” 등으로 규정되며, 음운론은 “유의미한 언어음의 연구(p.78)”로 규정된다. 이와 같이 그는 언어기술에 ‘의미 고려’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의미는 과학의 범위 내에서 분석될 수 없다(p.161). 그러므로 “의미분석이 과학의 능력 밖에 있는 한 언어의 분석과 기록은 기술(技術 art 또는 skill)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p.93)”고 했다.

한 언어의 음소목록은 그 언어 내에서 그것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될 때 그 언어의 구조에 합당하다(pp.129-30). 이 원리에 따라, 음소를 일차음소(primary phonemes)와 이차음소(secondary phonemes)로 구분하고 일차음소는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하위구분했다. 그리고 자음은 다시 어두, 어중, 어말 위치에서 그것들의 결합 가능성에 따라 더 구분하고 모음은 어떤 자음들이 결합될 수 있는가에 따라 더 구분했다(pp.131-36). 즉 그는 ‘분포(distribution)’에 의하여 음소를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편, 형태음소의 교체는 Bloomfield(1933/61:208-18)에서 매우 간단히 다루고 있으나 Bloomfield(1939)에서는 ‘형태음소론(morphophonemics)’라는 특별한 분야에서 다루었다. 그는 교체하는 어형을 ‘교체형(alternants)’이라 하고 어떤 교체형들은 그 중의 하나를 기본 교체형(basic alternant) 또는 기저형(underlying form)으로 선택하면 다른 교체형들은 어떤 조건 아래서 ‘앞, 뒤, 먼저, 다음’ 등의 기술 순서(the descriptive order)를 통하여 이 기저형을 대치하는 어형들로 기술된다고 했다.<sup>4)</sup>

4) 예컨대 knife의 복수인 knives는 [naɪf]를 기저형으로부터 먼저 [-f]가 [-v]로 대치되고 다음에 적절한 복수의 교체형 [-v]가 첨가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그런데 문법자

이러한 블룸필드의 음운론은, 언어학을 정확한 과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체의 심리적 요소와 의미를 배제하려고 한 점을 제외하면, 그의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어 이론과 방법론에 있어서 더욱 심화되고 정밀화되었다. 그들은 분절(segmentation)과 분류(classification)로 대표되는 음소의 발견절차(discovery procedure)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언어를 기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 2. 구조주의 음운이론의 수용과 국어 음운론

### 1) 구조주의 음운이론의 수용

‘음성’과 ‘음운’이 구별되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국어 음운론이 연구됨으로써, 국어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구조주의 음운이론과 방법이 국어 음운론에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론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1950년대에 구조주의 음운이론을 수용하여 국어의 음운을 연구한 분들의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과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초까지에 간행된 논저에서 발견되는 구조주의 음운이론 관련 내용을 통해서 구조주의 음운이론의 수용과정을 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에는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잘못은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1) 유럽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의 수용 :

먼저 Saussure 의 언어이론은 1928년에 출판된 小林英夫의 일본어 번역판 『언어학원론(言語學原論, 1928)』을 통해서 1930년대에 국어학 및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에 의해 국어학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李崇寧(1939)와 李熙昇(1939) 등에서 그 사실이 발견되는데, 국어의 언어현상에 대한 구조주의적 관점보다는 ‘Saussure 의 기본개념’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음을 본다. 그리하여 李崇寧(1939)에는 언어의 ‘공시성’과 ‘통시성’이, 李熙昇(1939)에는 언어의 ‘공시성, 통시성’과 함께 ‘능기(能記, signifiant), 소기(所記, signifié)’ 및

---

질(grammatical features)의 기술순서는 허구(fiction)이며 그것은 화자들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p. 213).

'언어기호의 자의성(恣意性)'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Saussure의 언어이론을 구성하는 몇 가지 개념의 적용 단계를 넘어서, 언어현상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는 李崇寧(1940)에서 발견된다.

다음으로 유럽의 구조주의 음운이론 중 프랑크학파의 음운이론은 李崇寧(1954)와 李仁模(1954), 金完鎮(1957)과 金完鎮(1963b) 등에 의해서 국어의 음운연구에 수용된다. 李崇寧(1954)에는, 출처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프랑크학단(=프랑크학파)'이라는 명칭과 함께 음운체계를 음운론적 대립의 총체로 보는 그 학파의 음운이론에 대한 견해가 소개되어 있고, 현대국어에서 단모음(單母音)으로 되어 있는 '애, 애, 위, 외'가 15세기에는 이중모음었다는 사실이 당시의 단모음체계와 음운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논증되고 있다. 그 와 함께 '자음체계, 모음체계, 상관속, 상관지, 상관성, 상관속적 대립' 등 프랑크학파가 사용한 중요 음운론적 술어도 발견된다.

한편 李仁模(1954)는 국어의 음운변화 중 경음화와 유기음화의 원인을 '발음명료(明瞭)의 욕구'로 보고 그것을 국어의 자음이 가진 4지적(肢的) '상관속(相關束)'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상관속'의 개념은 Trubetzkoy(1933)의 일본어 번역인 "現代의 音韻論(小林英夫 譯)"에서 수용한 것이다.

金完鎮(1957)과 (1963b)에 이르면, 프랑크학파의 음운이론, 그 중에서도 통시음운이론의 수용은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데, 金完鎮(1957)에는 Jakobson(1931)과 Wijk(1939)의 통시음운이론이 수용되어 논문의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金完鎮(1963b)에는 Saussure(1916/55), 위에 언급된 Jakobson(1931), Troubetzkoy(1933)과 (1939/57), Wijk(1937)과 Wijk(1939), Martinet(1939) 등의 통시음운이론이 수용되어 국어 모음체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음운이론들이 원문(原文)을 통해서 직접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 (2)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의 수용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은 1950년에 이르러 급속히 국어의 음운연구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론이 수용되는 과정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Martin의 논저와 Lukoff의 구조언어학 강의에 의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Martin은 일찍이 국어의 음소론(Martin 1951)과 형태음 소론(Martin 1954)을 발표하여,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에 의한 국어 음운 연구의 본을 보였으며, Lukoff는 1954년에서 1964년까지 10년간 연세대학교에 체류하는 동안에, Harris(1951)을 국내에 보급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의 언어학 강의를 통해서 미국의 구조주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그 결과 그 이론이 국내 연구자들에게 수용되었다는 것이다.<sup>5)</sup> 다른 하나는 미군 부대에서 훌러나온 그 관계의 책들이나 일본어로 번역된 그 관계의 책들을 통해서, 그 이론이 국내 학자들에게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은 초기에 미국 구조주의 음운이론이 수용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 학자가 국어의 음운연구에 그 이론을 수용한 것은, 유럽의 구조주의 음운이론보다 훨씬 늦은 1950년대 중기 이후에 이르러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許雄(1957), 許雄(1958b), 安秉禧(1959), 鄭然粲(1960), 김석득(1960)과 (1962) 등에서 확인된다.

許雄(1957)에는, 그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음성의 분포와 분류에 의한 음소분석론이, 김석득(1960)에는 Bloomfield(1933), Pike(1947a), Gleason (1955), Harris(1951)의 음운분석론이 수용되어 있다. 그리고 許雄(1958)의 제4장(음운의 변동)에는 Nida(1949)의 형태음소론이 수용되어 있으며, 김석득(1962)에는 Nida(1949), Martin(1954), Harris(1951) 등의 형태음소론이 수용되어 있다. 또 鄭然粲(1960)에는 許雄(1954)의 성조기술 방법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면서, Pike(1947a,b)의 음소이론과 성조이론도 수용되어 있다.<sup>6)</sup> 한편 安秉禧(1959)에는 Nida(1949), Gleason(1955), Harris(1951), Hockett (1958), Martin(1954)의 형태분석론이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許雄(1958b)의 제1장(음성학과 음운론)에는 유럽과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이 함께 수용되어 있다. 즉, 음소목록의 작성에는 음성의 분포와

5) 남기심 교수에 의하면, 김진우, 송석중, 이맹성, 남기심 교수 등이 언어학자가 된 것은 Lukoff의 언어학 강의에 영향받았기 때문이라고 밀했다.

6) Pike(1947b)의 성조이론은 訸雄(1954)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분류라는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이 수용되고, 음소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음운론적 대립’을 통해서 밝히려는 유럽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이 수용되어 있다. 그러한 이론의 원천은 Bloomfield(1933), Martin(1951), 小林英夫의 번역인 Saussure(1916/55), Trubetzkoy(1933)과 (1935)의 일본어 번역 “現代의 音韻論(小林英夫 譯)”과 『음운은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泉井久之助譯)』 등이다.

이렇게 수용된 유럽과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은 강의와 번역을 통해서 그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세대로 전수(傳授)되었다. 특히 1950년대 후기에, 許雄 교수는 언어학과(서울대)에서 Bloomfield(1933)을 강의하였으며 Pike의 『음소론 Phonemics(1947a)』의 내용을 전반에 걸쳐 소개하고 내파음 ‘ㄱ, ㄷ, ㅂ’의 문제나 유기음 ‘ㅋ, ㅌ, ㅍ, ㅊ’과 경음 등 몇 개의 국어 예를 들어 일반언어학의 원리를 국어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하였다(許雄 1958a). 그리고 李基文 교수는 국어국문학과(서울대)에서 Harris(1951)과 Hockett(1958) 등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을 바탕으로 국어 음운론을 강의하였으며, 박창해 교수는 국어국문학과(연세대)에서 Gleason(1955)을 강독하였다.

그리고 박창해 교수는 Gleason(1955)를 『기술언어학개론(서울: 경문사, 1961)』으로, 金芳漢 교수는 Martinet(1961)을 『言語學原論(서울: 一潮閣, 1963)』으로, 김선기 선생과 金泰漢 교수는 Bloch and Trager(1942)를 각각 『언어분석론(서울: 대한 교과서 인쇄공장, 1963)』과 『言語分析概論(대구: 螢雪出版社, 1965)』으로, 신익성 교수는 Cassirer(1945)를 “현대언어학의 구조주의(한글 138, 1966: 74-95)”로, 全在昊·金泰漢 교수는 Martin(1954)를 『韓國語形態音素論(서울: 宣明文化社, 1969)』으로 각각 번역하였다.<sup>7)</sup>

## 2) 구조주의 음운이론에 의한 국어 음운론

### (1) Saussure 및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에 의한 국어 음운론

7) 金敏洙(1989: 1)는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 도입의 다른 요인으로서, 1953년 서울 환도(遷都) 이후 국제적 민간교류와 1956년경 외서수입(外書輸入)의 재개, 1965년경에 늘어나기 시작한 외서복사판(外書複寫版)의 유통 등을 들고 있다.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 중에서 국어 음운론에 먼저 수용된 것은 Saussure의 언어학이론이었다. Saussure의 언어학이론은 李崇寧에 의하여 처음으로 국어 음운론에 수용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李崇寧(1939, 1940)에서 확인된다. 이들 글은 19세기의 역사·비교언어학과 20세기의 비구조언어학 중 프랑스 언어학의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sup>8)</sup> 언어사실을 취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Saussure(1916/59)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Saussure(1916/59)의 견해에 적극적인 찬동을 보이고 있는 사실(1939 : 13, 15, 26 등)에서도 그렇다고 하겠거니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더욱 그러하다. 먼저 李崇寧(1939, 1940)은 ‘음운’과 ‘음성’, ‘공시적 현상’(예. 십만(十萬) > 십만; 바람(風)이 > 바램이)과 ‘통시적 현상’(예. 손(手) + 빠(用)》(솜빠) > 솜씨; 개야미(蟻) > 개야미)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다음으로 李崇寧(1939, 1940)은 음운현상을, 개체에 고립시키지 않고, 다른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음운전체와 관련지어 이해하려고 한다.

예컨대, 李崇寧(1940)은,  $\Delta$ 의 변화를 음절수와 위치, 곡용과 활용, 음운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그 결과 어두 음절에서는  $\Delta \rightarrow a$  가 절대적이며, 이것은 전 후음(前後音)과 무관하게 일어난 자생적 변화로서 그것은  $\Delta$  와  $a$  가 모음도(母音圖)의 위치에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음이라(p.39)고 추측한다. 비어두 음절에서는  $\Delta \rightarrow i$ 가 절대적이지만, 이것은 자생적인 변화가 아니라 발음청취의 효과 불분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Delta$ 의 음 가추정에서 제외시킨다(p.52). 그리고 어두와 비어두 음절에서 위의 변화에 예외적인 것들 즉  $\Delta \rightarrow o$ ,  $\Delta \rightarrow \theta$ ,  $\Delta \rightarrow u$ ,  $\Delta \rightarrow i$  중  $\Delta \rightarrow u$ 와  $\Delta \rightarrow i$ 는  $\Delta$ 의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므로 ‘ $\Delta$ ’의 음가추정에서 제외한다.<sup>9)</sup> 그것들이  $\Delta$ 의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단어에서  $\Delta$ 의 전·후음을 고려하고 또 그

8) 이 말은 역사·비교언어학자인 K. Brugmann과 H. Paul 등의 논저, 프랑스 언어학과 중 정신생리학적 언어학자인 M. Grammont, 심리학적 언어학자인 J. Vendryes, 사회학적 언어학자인 A. Meillet 등의 논저가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실에 의한다.

9)  $\Delta \rightarrow u$ 에 해당되는 ‘바늘 > 바눌(針)’ 등은  $\Delta$  자체의 발달이 아닌 어형 강화에 말미암은 것이며  $\Delta \rightarrow i$ 에 해당되는 ‘아촘 > 아침(朝)’ 등은  $\Delta \rightarrow i$ 의 변화를 거친 뒤에 ‘좆(容)’과 같이 처음 아래서  $i \rightarrow i$ 에 의한 것이라 한다(pp.77-82).

들 단어의 공시적인 방언형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다른 환경을 가졌던 단어들이 겪은 변화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그 결과 나머지의 변화 즉  $\Lambda > \text{o}$ 와  $\Lambda > \theta$ 는  $\Lambda$ 가 모음도에서 각각 o, θ와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Lambda$ 의 음가는 'a, o, θ'의 간음(間音)이라고 한다(p.85). 여기에 다시 모음전체와 움라우트 현상과의 관계에서  $\Lambda$ 는 'o, θ, a'와 같은 움라우트 가능성권 내의 모음임을 밝히고 앞의 주장을 재확인한다. 그 결과 θ가 'a, o'의 중간에 있으므로  $\Lambda$ 는 'a, o'의 간음이라고 결론한다 (p.97).

이상과 같은 연구는 분명히 역사·비교언어학의 원자론적인 방법을 탈피한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음운현상을 다른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음운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구조언어학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 이 시기에는 '음운체계'나 '자음체계', '모음체계' 등의 술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모음체계'라는 술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모음도(母音圖)'나 '모음계열'이 사용된다. "음운변화를 논함에 체계에서 체계에의 변이로 음운계열의 변이로서 전 후음 관계를 주시하여 가며 각 음 상호관계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된다(1939 : 35)"는 인용 부분에 '체계'라는 술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 경우의 '체계'는 '음운체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의 '체계'는 '물 > 물(馬), 풀 > 풀(臂), 푸리 > 포리(蠅)' 등에 대한 '불 > 불(火), 물 > 물(水), 풀 > 풀(草)' 등의 변화에 대하여 "이상의 발달은 '불' 대 '불'의 발달과 동궤의 대립이니 언어발달의 체계적 추이에 새삼스러이 놀라는 바이다(1939 : 64-65)"에 사용된 '체계'와 같은 뜻을 가진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李崇寧이 '음운체계'의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인지 단연하기는 어렵다.

'체계'가 '음운체계'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음운체계', '모음체계', '자음체계'라는 술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李崇寧(1954/55)에 이르러서이다. "음운체계가 음운론적 대립의 총체라고 하는 프ラ그학단의 학설을 따른다면 국어의 음운체계로는 모음이 세 개의 상관속(Korrelationsbündel, faisceaux de corrélatives)으로 엮어짐이 훈민정음 제자체의 소론에서 시인되는 터이다 (pp. 330-31)"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비로소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이 국어

음운론에 수용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그 글에 ‘상관속(相關束), 이지적 상관지(二肢的 相關肢, corrélatif) 또는 상관단위(相關單位, unités corrélatives), 상관성(相關性, Korrelation, corrélation), 무관성(無關性, Disjunction, disjonction)’ 등의 술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15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에서 ‘i, u, Θ’와 ‘ʌ, o, a’는 각각 고모음계열(高母音系列)과 저모음계열(低母音系列)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i : ʌ, u : o, Θ : a’는 음운론적 대립관계를 가진 상관속이지만, i는 음운론적 대립관계를 가지지 않는 무관성으로 규정한다(pp.330-333)는 데에서 뒷받침된다.

한편 국어의 모음조화는 모음체계에서 상관성적 대립에 의한 전진적 동화 작용에 의한 음운현상이며(p.338), 훈민정음의 본문(本文)에 나타나는 성조의 ‘고저(高低)’, 모음의 ‘심천(深淺)’과 음성의 비교에 사용된 ‘려(勵), 불려(不勵)’ 등은 성(聲)의 자질(資質)이라(p.362)고 해석한다. 물론 15세기의 문헌 자료에 나타난 음운현상을 다른 음운현상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고찰함으로써 당시의 ‘ʌi, ʌj, oj, aj, ʌɪ, ʌɪ’가 이중모음이었음을 밝히는 방법(李崇寧 1949)도 李崇寧(1939, 1940)의 그것과 동일한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Saussure 및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 특히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은 그 시작에서부터 국어의 통시음운론 연구 또는 15세기 국어의 공시음운론 연구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 때의 이론은 프라그학파의 공시음운론에 한정되어 있었다. 역사·비교언어학 이론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프라그학파의 공시음운론과 통시음운론이 국어 음운론에 처음으로 수용된 것은 金完鎮(1957)에 이르러서이며 그 이론을 가장 철저하게 국어 음운론에 수용한 글은 金完鎮(1963b)이다.<sup>10)</sup>

10) 李仁模(1954)는 국어의 음운변화 중 경음화와 유기음화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발음명료(發音明瞭)의 욕구’로 보고, 그것을 상관특성 ‘경음’과 ‘유기음’ 외에 ‘유성음’을 도입하여 국어자음의 4지적(肢的) 상관속과 관련시켜 해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으’가 ‘으’로 되는 음운변화의 원인은 ‘으’음과 ‘으’음의 형태론적 대립과 통일에의 노력이라는 양면에서 찾으려 했다. ‘상관속과 대립’이라는 말에서, 이 글은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金完鎮(1957)은 알타이 조어(祖語)에서 분화된 원시 국어의 자음체계에 유성성(sonority)을 상관정표로 하는 자음대립의 계열이 존재하였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프라그학파의 통시음운이론의 핵심 내용이 전제(前提)되어 있다. “음운은 체계를 이루며 음운의 변천은 한 음운체계에서 다른 음운체계로의 추이를 의미한다(Wijk)”. “변화하는 것은 한 음운이라기 보다 음운 내지 음운군 사이의 차이가 생성, 소멸, 변경된다 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Jakobson)”. “음운변화는 공시론적 언어체계와 무관하기는커녕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Wijk)”.

한편 金完鎮(1963b)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어 모음체계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구명하고자 한 것으로, 15세기 모음체계의 본질, 음운변화와 음운체계, 모음추이(趨移), 현대국어의 모음체계, 15세기의 모음체계와 선행 시대 모음체계와의 관계를 그 내용으로 한다. 먼저 15세기 국어모음체계의 논의에서, 그 시기의 모음체계는 ‘이’만을 무관성으로 하는 ‘고모음’ 대(對) ‘저모음’의 대립 체계가 아니라 ‘중설모음’ 대 ‘후설모음’의 대립 체계라고 보았다.

그리고 근대국어의 9모음체계의 성립을 ‘으’의 소멸과 이중모음의 단모음화(單母音化) 및 ‘이’의 역행동화와 같은 음운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즉 ‘으’의 비음운화(非音韻化)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및 ‘이’의 역행동화작용은 음운체계 자체의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으’의 비음운화가 전 시기의 음운체계에 존재했던 조화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한 음운체계의 불균형을 수습하고 새로운 조화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이며, 그로 인하여 생성된 일련의 전설모음들이 음운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강시키는 존재가 ‘이’의 역행동화였다고 보았다.

나아가서 서울방언과 동남방언 및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현대국어의 모음체계를 고찰하고, 중세 이전의 문헌자료와 알타이 제어(諸語)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세와 그 이전의 국어 모음체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

없는 것은, 음운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이 그 글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의 술어가 이용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음운체계 및 음운변화에 대한 金完鎮(1963b)의 기본 이론은 다음에서 보듯이,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하는 것은 그 체계 자체요, 그 체계가 변화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Trubetzkoy). 음운체계의 변화의 방향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생성된 체계 내부의 불안정을 제거하고 조화된 체계를 이루하려고 움직인다 (Martinet). 변화의 양식(樣式)은 음운화, 탈음운화, 재음운화 등이나 그 목적 하는 바는 체계의 안정이다(Jakobson). 안정된 체계란 동일한 시차적(視差的) 능력을 유지하면서 언중의 부담량을 가장 가볍게 해주는 체계 즉 정방체계(正方體系)로서, 결국 음운체계의 변화는 정방체계를 지향한다(Martinet)”(pp.3-4).

이 이후로 프라그학파의 음운이론은 국어 음운론 특히 통시음운론 연구에 깊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결과 체계 중심의 연구가 계속된다. 許 雄(1964), 金芳漢(1964) 등이 그에 속한다. 許 雄(1964)는 중세국어의 치음 ‘ㅈ, ㅊ’은, 현대국어에서와 같은 경구개음이 아니라, 설단적 치조음(alveolar)이었을 것임을 음운대립으로써 밝히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국어의 경우, ‘ㅈ, ㅊ’의 뒤에서는 '/아/ : /야/, /어/ : /여/, /오/ : /요/, /우/ : /유/'의 여러 대립이 변별적 기능을 상실하고 일종의 중화현상을 일으키는데 대해서, 중세국어의 경우, 문헌자료는 그들 모음의 짹이 ‘ㅈ, ㅊ’ 뒤에서 대립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그 위치에서 '/아/ : /야/' 등이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 사실은 중세국어의 치음이 설단적 치조음이었다고 할 경우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金芳漢(1964)는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그 전후 단계의 모음체계의 변동을 고찰하면서,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를 재구한 다음 그 변동원인을 밝히고자한 것이다.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중세국어에서 각 모음의 음가, ‘으’음과 중세국어의 모음체계, 음의 소멸 및 체계의 변동이 중심내용을 이루는데, 이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은 프랑스의 기능·구조주의 음운이론과 통시음운이론다. 다시 말하면, 음운체계는 일반적으로 균형적인 안정상태를 향하여 변동하는데, 일단 균형이 잡힌 안정된 체계 내에서 어느 한 음운이 변화하여 균형을 잃게 되면, 그 체계는 다시 균형이 잡힌 안정된 것으로 변동

하여 이러한 체계의 변동은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Martinet의 통시 음운이론이다.

그리하여 金芳漢(1964)는 중세국어의 모음체계의 재구는 그 재구가 공식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변동 과정에 있어서의 한 단계로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에 따라서 ‘구조상의 구멍’을 보이는 단계를 설정한 다음, 거기서 ‘으’의 발생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그것을 알타이 공통조어의 8모음체계에서 이론적으로 추리한 고대국어의 변동된 체계를 재구한 이론적 결과라고 보았다. 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중세국어의 7모음체계 이전에 ‘이, 어, 으, 우, 오, 아’의 6모음체계를 가진 과도적 단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6모음체계의 모음들이 모음조화를 기준으로 한 대립상의 짹 ‘어 : 아, 으 : x, 우 : 오’에서 발생하는 ‘구조상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 ‘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으’의 소멸로 발생된 전설모음계열의 ‘구조상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로서, 그것이 ‘에(e)’와 ‘애(ε)’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 (2)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에 의한 국어 음운론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에 의한 음소의 기술은 許 雄(1957)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그 글은 분포와 의미를 기준으로 현대국어의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 글에서는 음성적 차이가 완전히 음성적 환경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그 차이가 언중(言衆)에게 인식되지 않는 소리들은 한 음소의 변이음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동시적 분포를 보이며 상호 교체되어 의미분화를 일으키는 소리들은 서로 다른 음소로 취급한다.<sup>12)</sup> 이런 류의 연구에 들 수 있는 것은 金敏洙(1962), 박창해(1963),

11) 이에 앞서 Martin(1951)이 있으나 외국인에 의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된다.

12) 음소 결정의 기준에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는데 그것이 Bloomfield (1933 /61)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프라고 언어학이론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p : p’ 등의 대립은 성대파열의 상관(Correlation)을 형성하고 p : ph 등의 대립은 유기음의 대립을 형성하는데, 이 두 상관은 다시 삼지적 상관속(三肢的 相關束)을 형성하는 것인(p.666)”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이 글의 필자는 프라고 언어학 이론을 알고 있었다고 하겠다.

許 雄(1968) 등이다.

金敏洙(1962)는 국어의 음소 수를 결정하고 음소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을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서 음소론(phonemics)의 체계와 이론을 소개하고 음소, 음소설정, 음소수, 음소체계, 기능부담량, 분절음소와 소분절 음소, 장음, 액센트, 어조, 연접, 강조 등에 대해서 일반언어학적 해설과 함께 국어에서 보기를 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음소배열론에서는 음소의 배열, 음절, 음소접합, 음소연결을 논하여 국어의 두음법칙과 말음법칙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박창해(1963)은 음성의 분포와 분류를 통하여, 현대국어의 음운과 그들 음운이 나타나는 위치를 밝히고, 특히 자음 음소들을 대상으로 그들 음소의 상호 배합 관계를 밝히려고 한 것이다.

한편 許 雄(1968)은 15세기와 현대 국어에서, 'w, j'와 각 시기의 단모음의 배합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소위 상승적 이중모음 체계의 비간을 음성적·음운적 이유를 기준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w, j'가 상승적 이중모음 체계의 빈간에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밝혔다. 즉 /ji/, /wo, wu/와 같은 이중모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j, w'와 그 뒤에 오는 모음이 '전설 고모음성'이나 '원순성'이라는 자질을 함께 가지기 때문인데, 그러한 빈간은 음운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며, /ji/, /wi/와 같은 이중모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15세기에 /wi/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의 중모음 체계 안의 비슷한 성질의 다른 중모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한편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에 의한 운소 그 중에서도 성조의 기술은 鄭然粲(1960)에서 확인된다.<sup>13)</sup> 鄭然粲(1960)은 15세기 국어의 성조체계에 대한 연구인데, 그 내용은 성조(tone)의 설명, 입성(入聲)과 상성(上聲), 음절수에 따른 성조형 등 15세기 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15세기 국어의 성조는 평판조(level pitch)로서 '거성(高調)'과 '평성

13) 물론 이보다 앞선 연구로 許 雄(1954)이 있고, 성조소의 결정과 음절수에 따른 어절 성조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구조주의 음운이론의 수용에 의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글 전체에서 찾을 수 없다.

(低調)'의 2성조소체계이며 '상성'은 '평성'과 '거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조이므로 성조소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음절별 성조형에 대해서, 1음절은 '평(平)'과 '거(去)'의 2형이, 2음절은 '평평, 평거, 거평, 거거'의 4형이, 3음절은 '평평평, 평평거, 평거평, 평거거, 거평평, 거평거, 거거평, 거거거'의 8형이 있음을 논하였다. 이와 함께, 동일 성조가 계속하여 세 개 이상 연결되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과 15세기 국어의 성조는 조사나 어미의 말음절이 '거성'인 것으로 보나 '평성'으로 시작하고 '거성'으로 끝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형태소의 교체현상이 생성음운론적 연구의 본령이 되기까지, 국어의 형태음소론적 연구는 전적으로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 주로 Nida(1949)와 Harris(1951)의 이론과 방법을 수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내용은 대체로 분포에 의하여 형태를 분석하고 분석된 이형태들로부터 기본형 즉 형태소를 정한 다음 형태음소의 교체를 기술하는 것인데, 安秉禧(1959), 김석득(1962), 李基文(1962) 등이 그러한 연구에 속한다.<sup>14)</sup>

安秉禧(1959)는 Nida(1949)의 이론을 바탕으로 15세기 국어의 활용체계를 형태론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문헌에서 수집된 자료를 형태로 분석하여 어간과 어미로 나누고, 분석된 어간의 이형태로부터 기본형을 설정하며, 설정된 기본형을 기준으로 이형태가 실현되는 음운론적 조건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김석득(1962)는 Nida(1949), Harris(1951), Martin(1952)의 형태음소론을 바탕으로, 현대국어의 형태음소의 변동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형태음소의 음운과정을 '귀착, 동화, 경음화, 도치, 교체, 탈락, 축약, 삽입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와는 달리, 李基文(1962)는 15세기 국어에서 비자동적 어간교체를 보이는 체언과 용언의 교체 유형을 기술하고, 그로부터 그 이전의 교체형이나 단일형을 재구(再構)하고 그 이후의 발달을 기술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주의 음운이론 중 유럽의 구조주의 음운이론은 미국의 구조주의 음운이론보다 먼저 국어 음운론에 수용되었

14) 이 방면의 선행연구로는 Martin(1952)가 있다.

다. 그러나 두 가지 음운이론은 수용되는 연구 대상이 서로 달랐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음운이론은 국어의 통시음운연구에 수용되었고 미국의 음운이론(형태음소론 포함)은 국어의 공시음운연구, 다시 말하면 현대국어나 중세국어의 음소연구나 성조연구, 그리고 형태음소연구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그들 두 음운이론이 동일한 글에 수용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변화를 체계의 변화로 보고 외적인 성조형을 통하여 내적인 기제(機制)를 밝히고자 한 金完鎮(1963a)와 분포에 의하여 음운목록을 작성하고 음소간의 대립을 통하여 음운체계를 논하고 있는 鄭然榮(1968) 등이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

### III. 생성음운이론과 국어 음운론

구조언어학의 이론을 수용하여 국어가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N. Chomsky에 의한, 언어학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언어이론이 생겨났다. 그것은 변형·생성문법론이라 불리는 것인데 N. Chomsky and M. Halle(1968)에 의하면, 그 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떤 언어의 기술적 연구의 목적은 문법의 구성을이다. 언어는 文의 집합이며 개개의 문은 이상적인 음성형과 그와 결부된 의미를 가진다(p.3). 한 언어의 문법은 그러한 음성과 의미의 대응을 설명하는 규칙의 체계이다. ‘문법’은, 한편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마음 속에 내재된 규칙의 체계(언어능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내재화된, 화자와 청자의 문법에 대한 가설로서 언어학자가 구성하는 이론이다(p.4).

언어 연구에 대한 이런 태도는 외적현상으로서의 언어의 개념으로부터 정신적 현상인 언어지식으로서의 언어로 관점이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로부터 개인으로 관점이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이동은 언어연구 대상의 이동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변형·생성문법론자들이 생각하는 언어연구의 대상은 기록된 발화가 아니라 화자의 언어능력(내재화된 규칙의 체계)인 것이다.

한 언어를 기술하는 문법은 통사부, 의미부, 음운부로 구성되는데 생성음운론은 그와 같은 문법의 일부로서, 기저형(음운부의 심층구조 = 통사부의 표면구조)에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음성형(음운부의 표면구조)에 이르는 음운과정(phono logical processes)을 설명하는 분야다. 이러한 생성음운이론은 여러 단계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선음운이론과 비단선음운이론(자립분절음운이론, 운율음운이론, 음절음운이론), 그리고 어휘음운이론, 의존음운이론, 지배음운이론, 최적성이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음운이론 모두가 국어의 음운연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국어 음운론자들의 국어 음운연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음운이론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단순음운이론 중에서는 추상음운이론과 구체음운이론, 비단선음운이론 중에서는 자립분절음운이론과 음절음운이론, 그리고 어휘음운이론이다. 최적성이론에 의한 국어의 음운연구는 국내에서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글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 1. 단선음운이론

### 1) 단선음운이론의 개관

Chomsky와 Halle(1968)로 대표되는 표준생성음운이론 즉 추상음운이론에서 구체음운이론을 포함하는 음운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규칙의 체계였으며, 기저형과 음운규칙의 문제가 핵심적인 논의대상이 되면서 발전을 계속하여 왔다. 여기서는 추상음운론(abstract phonology)과 구체음운론(concrete phonology)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A. 추상음운이론

추상음운이론은 Chomsky와 Halle(1968)에 제시된 이론으로 표준생성음운론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의 기본가정은 표면의 모든 교체형들은, 그것들끼리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기저형(unique underlying form)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단일한 기저형에 음운규칙이 적용됨으로써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자연히 모든 교체형이 도출되는 기저형에 대하여는 음성형과는 다른 상당한 추상성을 인정하게 되며, 즉 그 언어의 음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음소가 기저형에 사용되며 그 결과 추상적인 단일 기저형으로부터 모든 교체형을 도출시키기 위하여, 적용되는 일련의 음운규칙에 대하여는 외재적으로 순서지어진 규칙의 적용순서를 인정하게 된다. 이 이론은 그 초기부터 기저형의 지나친 추상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지만(Kiparsky 1968), 1970년대 초 Vennemann(1971)과 Hooper(1976)에 의하여 본격적인 비판을 받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 B. 구체음운이론

음운론적 해결을 위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기저형과 추상적 음운규칙—추상적 기저형에 대하여 설정된 규칙은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리고 외재적인 규칙적용순서는 일반규칙과 조건에 의하여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음운현상을 말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추상음운론자들이 가정하는 그러한 기저형과 음운규칙, 그리고 규칙의 적용순서는 본토박이 화자들이 자기 언어에 대하여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실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자들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실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음운과정의 설명을 목적으로 하고 나온 것이 구체음운이론인 자연생성음운이론이다.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기저형과 음성형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음성형까지의 도출과정에 적용되는 규칙들 사이에 외재적인 적용순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음성형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음소가 기저형에 설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추상음운이론에서 구별 없이 사용되던 음운규칙(P-rule)과 형태음운규칙(MS-rule)을 엄격하게 구별한다.<sup>15)</sup>

---

15) 구체음운이론의 내용과 추상음운론에 대한 비판은 Hooper(1976), Skousen(1975), Tranel(1981) 등을 참조할 것.

## 2) 단선음운이론의 수용과 국어 음운론

### (1) 단선음운이론의 수용

구조주의 음운이론이 국어 음운론자들의 이해를 거쳐 국어의 음운연구에 적용됨으로써 국어 음운론에 수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생성음운이론은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로 미국에서 직접 그 이론을 공부한 연구자들(거의 모두가 국내의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이다)의 이해를 거쳐 그들에 의해 국어의 음운연구에 적용되는 과정을 거쳐서 국어 음운론에 수용되었다.

주로 미국 대학의 언어학과에서 음운론을 전공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이론이 국어의 음운연구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비교적 국어의 음운연구 목록이 잘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배주채(1996)『국어음운론 개설(서울: 신구문화사)』의 부록 〈국어음운론논저목록〉을 분석해 보면, 1967년에서 1981년까지에 이르는 15년간은, 몇몇 국어 음운론자의 연구도 있기는 했으나, 거의 해외 유학자(留學者)들의 주도 아래에 단선음운이론에 의한 국어의 음운 연구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연구를 해외 유학자들의 것과 국어 음운론자들의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해외 유학자의 연구

##### a. 1967-71년 [10 편]

Kim Chin-W.(金鎭宇 67, 68, 70, 71a,b), Cho Seung-Bog(67), 이해숙(68a,b, 69), 이승환(71)

##### b. 1972-76년 [23 편]

Kim Chin-W.(金鎭宇 72, 73a,b, 76), 이해숙(73), Kim-Renaud Young-key(73, 75a, 75b, 76), Cook Eung-Do(73), 이승환(73), Lee Chung-min(73), Moon Yang-Soo(문양수 73, 74a,b), Lee Pyung-Gun(이병건 74/76, 76), Cheun Sang-Buom(田相範 75, 76a,b), Kim Soo-Gon(김수곤 76a,b), Kim Kon-On & M. Shibatani(76)

##### c. 1977-81년 [32 편]

Kim-Renaud Young-key(77, 78a,b), 田相範(77, 78a,b), 김수곤(77, 78a,

b), 이병건(77, 78, 79, 80, 81), Sohn Han(77, 78), 문양수(78), Lee Sang-Oak(李相億 78a,b, 79a,b), Kim Kon-On(78), Lee Ik-Hwan(78), Kim Chin-W.(金鎮宇 78, 79, 80(共), 81a,b), Chung Kook(鄭國 79, 80), 李蕙淑(80), Moon Kyung-Hwan(81)

#### B. 국어 음운론자의 연구<sup>16)</sup>

##### a. 1967-71년 [5 편]

李基文(69), 김영송(71), 김차근(71), 金完鎮(71, 72),

##### b. 1972-76년 [10 편]

李基文(72), 金完鎮(72), 黃희영(72), 李翊燮(72), 李秉根(73, 75, 76), 崔明玉(74, 76), 박의근(75)

##### c. 1977-81년 [18 편]

李秉根(77, 78, 81), 강성로(77), 김 혁(77), 宋喆儀(77), 김석득(78), 김 차근(78, 80, 81), 崔明玉(78, 79, 80), 李基文(79), 崔銓承(80), 都守熙(80(共), 81), 李丞宰(80)

위에 제시된 것은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기간은 주로 구조주의 음운이론의 바탕 위에 단선음운이론이 첨가된 국어의 음운연구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1982년부터는 단선음운이론의 바탕 위에 국어의 음운연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걸쳐 단선음운이론을 배운 신진 국어 음운론자들에 의한 연구가 그때부터 대량으로 발표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朴昌遠(1982), 宋喆儀(1982), 李丞宰(1982), 鄭仁祥(1982), 申承遠(1982), 白斗鉉(1982), 姜昶錫(1982) 등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1980년대 이후의 국어 음운연구는 생성음운이론이 자배적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 (2) 단선음운이론에 의한 국어 음운론

---

16) 어느 정도 단선음운이론을 배경으로 한 논저는 모두 여기에 포함시켰다.

### A. 추상음운이론에 의한 연구

추상음운이론은 현대국어의 음운연구와 중세국어의 음운연구에 수용되었는데, 주로 그 이론은 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대부분 현대국어의 음운연구에, 국내에서 국어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구조언어학 이론에 크게 의지하면서 중세국어의 음운연구에 수용하였다. Chin-W. Kim(1968)과 金鎭宇(1971b), 이병건(1973/76) 등은 전자에 속하고 李基文(1969, 1972)과 김차균(1971)과 金完鎭(1972)<sup>17)</sup> 등은 후자에 속한다.

그 중 Chin-W. Kim(1968)은 종래까지 인정되어 온 현대국어의 9모음체계를 부정하고 4기저모음체계를 주장한 것이다. 즉 현대국어의 기저모음은 '으(i)', 어(ə), 오(o), 아(a)'의 넷이며, 종래에 인정되어 온 9개의 모음 '이(i)', 에(e), 애(ε), 외(ö), 으(i), 어(ə), 우(u), 오(o), 아(a)' 중 '이(i)', '에(e)', '애(ε)', '외(ö)', '우(u)'는 기저모음과 활음 w, y의 통합에 의해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다섯 개의 규칙을 설정한다(pp.523-24).

규칙1 : 후활음(off-glide) w는 허용하지 않고 y는 허용하는 형태소 구조 조건

규칙2 : 전설모음화규칙 : V → [-back] / \_\_\_\_ y- (-는 형태소 경계)

규칙3 : 후활음 y탈락규칙 : y → ø / [-back] \_\_\_\_

규칙4 : 원순화규칙 : /i/ → [u] / glide \_\_\_\_

규칙5 : 전활음(on-glide) 탈락규칙 : glide → ø / \_\_\_\_ [+high]

그리하여 단모음 '에, 애, 이, 외'는 /əy/, /ay/, /iy/, /oy/에 규칙2와 3이 차례로 적용됨으로써 도출되며, 단모음 '우'는 /wi/나 /yi/에 규칙4와 5가 차례로 적용됨으로써 도출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金鎭宇(1971b),<sup>18)</sup> 김차균(1971), 金完鎭(1972), 이병건(1973/76) 등은 추상적 기저음소를 설정하여 형태소경계에서의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

17) 金完鎭(1972)는 원래 장모음(긴장모음)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 이지만, 변칙현상을 설명하는 한가지 방안으로서 'ㅂ'변칙동사와 'ㄷ'변칙동사의 음 운현상의 설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pp.274-75). 그들 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 소와 그것에 적용되는 음운규칙은 김차균(1971)과 동일하다.

18) 이 논문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Ch-W. Kim(1973)에 영문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한 것이다. 예를 들면, ‘ㅂ, ㅅ, ㄷ’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들 논문에 제시된 어간말의 기저음소는 다음과 같다.

	p-변칙/정칙	s-변칙/정칙	t-변칙/정칙
(a) 金鎮宇(1971b)	w/p	s/sh	r/t
(b) 김차근(1971)	β/p	z/s	δ/t
(c) 이병건(1973/76)	b/p	z/s	d/t

이들 제안은 소위 정칙동사와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의 차이를 어간말 기저음소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여, 두 현상을 모두 규칙으로써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소위 ‘ㅂ, ㅅ, ㄷ’ 정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를 각각 ‘ㅂ(p), ㅅ(sh 또는 s), ㄷ(t)’으로 보고, 소위 ‘ㅂ, ㅅ, ㄷ’ 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를 각각 ‘w/β/ㅂ(b)’, {s(z)/△(z)}, {ㄹ(r)/유성 치조 마찰음 ‘ㄷ’(δ)/ㄷ(d)}으로 보아, 자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ㅂ’변칙	‘ㅅ’변칙	‘ㄷ’변칙
(a) 金鎮宇(1971b)	w → p / __ C	s → z / V __ V	r → t / __ C
(b) 김차근(1971)	① β → p / __ C	z → s / __ C	δ → t / __ C
	② β → w / __ V	z → ø / __ V	δ → r / __ V
(c) 이병건(1973/76)	① b → p / __ C	z → s / __ C	d → t / __ C
	② b → w / __ V	z → ø / __ V	d → r / __ V

다음에 제시된 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곱-(麗)’	‘잇-(連)’	‘문-(問)’	
/kow+ko/ /kow+əto/	/is+ko/ /is+əto/	/mur+ko/ /mur+əto/	기저형
kop ko -----	----	iz əto	mut ko -----
[‥]	[‥]	[‥]	[‥]
[kopk'o]	[kowadol]	[itk'o]	[iədo]
			규칙 R
			음성형

'굽-(麽)'		'잇-(連)'		'묻-(問)'		기저형 (b)/(c) ①
/ko[β/b]+k/	/ko[β/b]+to/	/iz+ko/	/iz+ətə/	/mu[ð/d]+ko/	/mu[ð/d]+ətə/	
kop ko	-----	is ko	----	mut ko	-----	(b)/(c) ②
-----	kow ətə	-----	iø ətə	-----	mur ətə	규칙 R
[…]	[…]	[…]	[…]	[…]	[…]	음성형
[kopk'ol]	[kowado]	[itk'ol]	[iədəl]	[mutk'ol]	[mureðdəl]	

세 가지 해결안에 제시된 기저형과 규칙은 서로 다르지만, 그 결과 즉 음성형은 모두 동일하다. 이 사실은 그들 해결안이 모두 타당하다는 것을 뜻하다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 해결안에 제시된 기저형과 규칙을 검토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로 설정된 음소들이 분포상 또는 기능상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정된 규칙 또한 현대국어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金鎮宇(1971b)에서, ‘ㅂ’변칙동사의 기저음소 w는 현대국어에서 w가 모음 뒤에 분포될 수 없다는 제약을 어긴다. 그리고 w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ㅂ’으로 된다는 규칙은 국어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으며 현대국어에서도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없다.

한편 金鎮宇(1971b)은 ‘ㅅ’변칙동사와 정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를 각각 s와 sh로 구별하고 있는데, 그 두 음소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는 최소대립어는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ㅅ’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 s가 모음 사이에서 z(Δ)로 변동한다는 규칙은 현대국어에서 인정될 수 없다. 金鎮宇(1971b)는 또 두 종류의 기저음소 r과 l을 설정하여, r은 ‘ㄷ’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으로, l은 그 외의 ‘ㄹ’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r과 l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는 최소대립어는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l은 ‘ㄷ’으로 되지 않는데, r은 ‘ㄷ’으로 된다는 규칙 또한 현대국어에서 인정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김자균(1971)과 이

병건(1973/76)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현대국어에서 β(또는 b) 와 p, z와 s, 그리고 δ(또는 d)와 t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는 최소 대립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β(또는 b)와 z와 δ(또는 d)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각각 w와 ø와 r로 되는 규칙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현대국어의 음소체계에서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키는 폐쇄음소와 치조마찰음소 중 평음소는 ‘ㅂ(p), ㄷ(t), ㅈ(c), ㅋ(k)’과 ‘ㅅ’ 뿐이며, 유음소는 ‘ㄹ(l)’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어간말 기저음소들은 모두가 현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음소라 하겠다.<sup>19)</sup>

이외는 달리, 金榮起(Kim-Renaud, Young-Key 1973), 이병건(1976) 등은 규칙적용의 순서로써 음운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예컨대 金榮起(Kim-Renaud, Young-Key 1973: 222)은 동사 ‘하’가 어미 ‘-아라’와 통합하여 실현되는 음성형 [해: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① 모음조화규칙, ② y삽입규칙, ③ 어미의 ‘아’와 y의 도치규칙, ④ 통합규칙, ⑤ 단모음화규칙 등을 설정하고, 다음에서 보듯이, 그들 규칙이 순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sup>20)</sup> /ha + əla/ -①→ ha ala -②→ ha y ala -③→ ha a yla -④→ ha: yla -⑤→ [hæ:ra].

그리고 이병건(1976: 28-29) 도 ① 어미의 첫음 ‘어’와 ‘아’의 탈락규칙과 ② 활음형성규칙 그리고 ③ 모음조화규칙의 상호순서로서 ‘끼 + 어’(捕), ‘두 + 어’(置는), ‘보 + 어’(示)가 각각 [께], [둬], [봐]로 실현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즉 ‘베 + 어’(斬)와 ‘개 + 어’(晴), ‘뛰 + 어’(走) 등이 각각 [베], [개], [뛰]로 실현되는 사실에서, 어미의 첫음 ‘어’와 ‘아’는 형태소 경계를 사이로 하고 모음 뒤에서 탈락한다는 규칙이 인정되며, ‘기 + 어’(匍匐)과 ‘꾸 + 어’(夢)가 각각 [겨]와 [꿔]로 되는 사실에서 활음형성규칙이 인정된다. 그리고 ‘잡 + 어’(執)과 ‘숨 + 어’(隱)가 각각 [자배]와 [수메]로 되는 사실에서

19) 金鎮宇(1971b)에서 ‘ㅂ’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 w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w 하향이중모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점에서 어간 말에 설정된 기저음소 w는 추상음소라고 하겠다.

20) 이러한 해결안에 대한 비판은 崔明玉(1988: 46-48)을 참고하기 바람.

모음조화규칙 또한 인정된다.

그런데 '끼 + 어'(挿), '두 + 어'(置는), '보 + 어'(示)의 경우에 규칙 ①이 먼저 적용되면, 규칙 ②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결과는 [끼], [두], [보]와 같이 옳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③, ②, ①의 순서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B. 구체음운이론에 의한 연구

추상음운이론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고 등장한 구체음운이론이<sup>21)</sup> 국어의 음운연구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기부터이다. 그 이론을 국어의 음운연구에 수용한 것으로는 Young-Key Kim-Renaud(1975a)와 金手坤(1977)과 이병건(1978), Moon(1981), 崔明玉(1985)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추상음운이론에 의한 종래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고, 추상적 기저음소를 설정하는 대신, ① 음성형을 중시하여 음성형의 구조적 특징이나 형태·통사론적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음운규칙이나 ② 구별자질표시(diacritic mark)나 ③ 변칙동사의 어휘화된 이형태(lexicalized allomorphs)에 의하여 교체형을 설명한다.

구체음운이론으로써 활발하게 연구된 국어 음운연구의 하나로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을 들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연구들 또는 그 일부가 그에 해당한다. 그들 연구의 담당자들은 모두 추상적인 기저음소를 설정하여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판하고 구체음운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안을 제시한다.

먼저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Young-Key Kim-Renaud(1975a), 金手坤(1977)과 Moon(1981)을 들 수 있다. 먼저 Young-Key Kim-Renaud(1975a: 25-45)는 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를 정칙동사와 동일하게 'ㅂ(p), ㅅ(s), ㄷ(t)'으로 정하고 다음의 두 규칙과 그 외의 다른 규칙들로써 그들 동사의 어간이 어미와 통합할 때의 음운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text{규칙1} : [\text{p/s/t}] \rightarrow [\text{w}/\emptyset/\text{r}] / \text{V}: \underline{\quad} \& \text{V}$$

21) 추상음운이론에 대한 비판과 구체음운이론의 내용은 Hooper(1976)와 함께 Skousen(1975)와 Tranel(1981) 등을 참조하기 바람.

규칙2 : V → [-long] / \_\_\_ C0 & V

위에서 규칙1은 어간말 기저음소 ‘ㅂ,ㅅ,ㄷ’은 어간의 장모음과 어미의 모음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약화되어 각각 ‘w, ø, ㄹ’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칙2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장모음은 단모음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아름답-(美), 가깝-(近)’ 등과 ‘깨닫-(覺), 일컫-(稱)’ 등 이음절 이상의 어간을 가진 ‘ㅂ’과 ‘ㄷ’변칙동사의 어간 말음절에도 기저 장모음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金手坤(1976, 1977)은 ‘ㅂ’변칙동사의 음운현상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ㅂ’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는 ‘ㅂ’정칙동사의 그것과 동일하게 ‘ㅂ(p)’인데, 두 동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앞의 동사는 대부분의 어간이 2음절 이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1음절 어간을 가진 ‘ㅂ’변칙동사의 대부분은 어간모음이 장모음인데, 장모음을 동일 모음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면, 그들 어간 역시 2음절 어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의 두 규칙으로써 ‘ㅂ’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규칙1 : p → w / (C0V)1([C, not c])V\_\_\_JVst + V]suffix

규칙2 : V → ø / CV \_\_\_ CV

위의 규칙1은 ‘ㅂ’으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어간으로서, 어간말음절이 ‘ㅈ’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ㅂ’은 w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칙2는 “의미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음절의 초성이 자음을 가지지 못하는 모음은 탈락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Moon(1981)은 ‘ㅂ’변칙동사의 음운현상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 동사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의 음운현상을 다음과 같은 어간의 기저구조와 어간말 ‘ㅂ’의 극단적인 약화규칙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ㅂ’변칙동사 어간의 기저형 : /... [o,u]p-/

규칙 :  $p \rightarrow \emptyset / V[V, +round] \_\_ + V$

②(‘구별자질표시’에 의한 해결안)의 경우로서, 이병건(1978)을 들 수 있다. 이병건(1978)은 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  $p, s, t$  아래에 ‘[+irreg](= [+불규칙])’와 같은 구별자질표시를 하고, 그러한 표시가 붙은  $p, s, t$ 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각각  $w, \emptyset, l$ 로 된다는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그들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③(‘어휘화된 이형태’에 의한 해결안)의 경우로서 崔明玉(1985)를 들 수 있다. 崔明玉(1985)는 ‘ㅂ, ㅅ, ㄷ’ 변칙동사는 원래 어간말 기저음소로서 유성마찰음 ‘ㅍ(β), ㅊ(z), ㅌ(δ)’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는데, 유성마찰음체계가 소멸함과 동시에, 자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이 다음과 같이 어휘화된 것으로 본다.

$$X\beta^- \rightarrow \{Xp^-, Xu^-, Xz^-\} \quad Xt^- \rightarrow \{Xt^-, X\emptyset^-\} \text{ 또는 } X\delta^- \rightarrow \{Xt^-, Xl^-\}^{22)}^{23)}$$

그들 교체형의 어간말의 ‘ㅂ’과 ‘우’, ‘ㄷ’과 ‘empty’, 그리고 ‘ㄷ’과 ‘ㄹ’이 어떤 하나의 기저음소로부터 도출되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음성학적이거나 음운론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Xp^-$ 와  $Xu^-$ ,  $Xt^-$ 와  $X\emptyset^-$ , 그리고  $Xt^-$ 와  $Xl^-$ 은 모두 어휘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소위 ‘ㅂ, ㅅ, ㄷ’변칙동사들의 기저형을 각각 /X[p-ul-/, /X[t-∅-/, /X[t-l-]/으로 본다. 각 변칙동사의 기저형에서 앞의 것과 뒤의 것은 각각 자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선택되는 규칙에 의해 선택되며, 그 뒤에 필요한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실현되는 것이 소위 ‘ㅂ, ㅅ, ㄷ’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이라고 본다.<sup>24)</sup>

22) 崔明玉(1993: 1634)에서는,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과 대방언에서 일어난 소위 ‘ㅅ’변칙동사가 겪은 재구조화를 고려하여, 현대국어에서 ‘ㅅ’변칙동사의 기저형은 ‘Xt?’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3) 崔明玉(1993: 1634)에서는,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과 대방언에서 일어난 소위 ‘ㄷ’변칙동사가 겪은 재구조화를 고려할 때에, 현대국어에서 ‘ㄷ’변칙동사의 기저형은 ‘Xl?’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어의 기저모음체계의 연구(Ik-Hwan Lee 1978, Kong-On Kim 1978),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金手坤 1977, Moon 1981, 崔明玉 1985), 경음화현상에 대한 연구(전상범 1976, Han Sohn 1978), 자음동화에 대한 연구(김차근 1976, 李秉根 1977), 음운탈락에 대한 연구(金榮起 1975b, 李秉根 1981), 음장 및 음장과 관련된 연구(金鑑字 1976, 李秉根 1978, 1986), 음절 및 음절과 관련된 연구(김차근 1981, 姜昶錫 1984), 음운현상에 관여하는 비음운론적 제약에 대한 연구(李秉根 1975), 성조에 대한 연구(김차근 1977, Ramsey 1978), 공모성에 대한 연구(李相億 1979) 등이 그간에 이루어진 국어 음운론의 대강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이 사실은 생성음운이론이 국어 음운론에 수용되어 얼마만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 2. 비단선음운이론

### 1) 비단선음운이론의 개관

생성음운이론의 첫단계는 형태음소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기저표시와 음성표시를 연결시켜 주는 규칙체계에 대한 것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자연어의 음성체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규칙과 관련된 논의는 연구자 간에 의견이 달라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관심의 방향이 규칙체계에서 음운론적 표시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생성음운이론의 둘째 단계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강세나 성조와 같은 운소(prosodeme 또는 초분절음소 suprasegmental phoneme) 현상은 분절음의 배열과 같은 단선적 음운표시 방법으로는 설명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여러 개의 층열(tier)을 허용하는 음운표시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여러 개의 층열로써 음운론적 표시를 하는 음운론을 비단선음운론(non-linear phonology)이라고 하며 복선음운론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자립분절

24) ‘ㅂ’ 변칙동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규정으로 설명한다.

/X p-u/-/->	Xpa/_CY
	Xu/_VY

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 운율음운론(metrical phonology), 음절음운론(syllabic phonology)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국어 음운론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자립분절음운이론과 음절음운이론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립분절음운이론은 원래 성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Goldsmith (1976)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표준생선음운론에서는 성조와 같은 운소는 음소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성조자질은 음소를 구성하는 자질들과 함께 묶어 나열된다. 특히 음소와 굴곡성조 즉 '상승조(rising tone)'나 '하강조(falling tone)'를 함께 나타내기가 어렵다. 굴곡성조를 평판성조의 결합으로 보는 경우에, '하강조'는 '고조(high tone)'와 '저조(low tone)'의 결합이므로, 그 두 성조의 자질을 함께 나타내어야 한다. 그런데 '고조'와 '저조'의 자질은 자질값이 상반되므로, 그들 자질을 음소의 자질과 함께 나타내면, 그때의 성조가 '상승조'인지 '하강조'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그 둘의 구별을 위해서 운소의 자질에 순서를 부여한다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음소의 자질표시를 따로 구별하든지 아니면 나열되는 자질간에는 순서가 매겨져 있지 않다는 표준생성음운이론의 기본원리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원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굴곡성조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문제는, 표준생성음운이론의 틀과는 달리, 운소자질과 음소자질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보고, 그 둘을 다른 층별로 분리시키고, 연결선으로 모음에 대한 성조자질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 경우에 연결로 인한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1) 모든 모음은 적어도 한 개의 성조와 연결되며, 모든 성조는 적어도 한 개의 모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과 (2) 연결선은 서로 교차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적형조건(well-formedness condition)을 부여한다.<sup>25)</sup> 그러나 그 후의 연구에 의하여, '부동성조(floating

25) 이러한 조건이 적용된 성조표시는 다음과 같다.



tone)'와 '무표성조(default tone)<sup>26)</sup>'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성조들은 연결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성조 소지(tone-bearing) 단위들은 성조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sup>27)</sup>

성조의 자립분절 분석에 대한 Goldsmith의 창의적인 이론은 널리 수용되어 성조음운론은 물론 비성조현상 즉 모음조화, 분절음동화, 음절구조, 보상적 장음 등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되었다(G. N. Clements in Bright 1992 vol. 1: 146-49).

음절음운이론은 음절을 생성음운론의 단위로 도입하여 음운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인데, Pulgram(1970), Vennemann(1972), Hooper(1972)에서 제기되어, Kahn(1976), Kiparsky(1979), Selkirk(1982), Clements & Keyser(1983)을 거치면서 수정되고 발전되었으나 확립된 이론이 형성되지는 못했다. 이 이론의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ulgram(1970)에 제시된 이론의 핵심은 다음에 제시된 음절구조를 결정짓는 보편적인 세 원칙이다. ① 최대 개방음절 원칙 : 이것은 가능한 한 각 음절은 개방음절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최소의 말음과 최대의 두음 원칙 : 이것은 음절이 개방음절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음절말음은 될 수 있는 한 그 수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불규칙말음원칙 : 이것은 ②의 두음원칙이 적용되고도 어두에 허용되지 않는 자음들이 남아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앞 음절의 말음으로 하여, 그 경우에 생기는 불규칙성의 부담을 말음이 지게 하는 원칙이다.

Kahn(1976)의 음절이론은 음성 현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음절 구조의 형성은 음성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Kahn은 자립분절음운론의 영향을 받아 표준생성음운론의 음운론적 표시인 분절음층열 위에 음절을 나타내는 별도의 음절층열(syllabic tier)을 만들고 연결선으로 연결하도록 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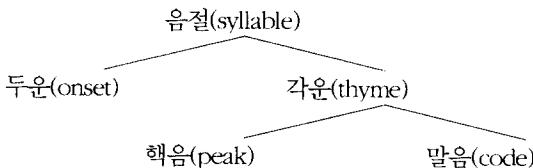
26) 이 성조는 연결과정이 수행된 뒤에야 비로소 표시에 삽입되는 성조이다.

27) 부동성조(a)와 무표성조(b)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a. t t	b. t t t t t t
	→    √
H L H	H L H L
〈부동 L 성조〉	〈무표 L 성조 삽입〉

로써, 분절음운이론의 틀을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고 CV음운론을 성립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Kahn은 음절구조를 형성하는 세 개의 규칙 즉 음절구조할당규칙(syllable structure assignment rule)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규칙1 : 입력연쇄에 [+syllabic] 자질을 가진 분절음은 독립된 음절핵을 이루어 한 개의 음절과 연결된다. 규칙2 : 음절초 자음군이 허용되는 최대의 것 이면 그것들은 그 다음의 모음과 합하여 한 음절이 된다. 규칙3 : 규칙2에 의해 후속 모음에 연결되지 않은 자음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음절말 자음군으로 허용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앞 모음과 합하여 한 음절이 된다.

한편 Kiparsky(1979)는 운율음운론의 영향을 받아 음절구조를 운율수형도로 기술하였는데, 제시된 음절구조는 모두가 양분지 수형도를 이루면서 ‘두 음(onset)’과 ‘각운(ryhme)’을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Selkirk(1982)는 Kiparsky(1979)에 제시된 음절구조 중 ‘각운’을 다시 ‘핵음’과 ‘말음’으로 구분함으로써 음절을 더욱 계층적인 구조로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Kahn(1976)이 설명할 수 없는 음소배열제약을 설명하려고 했다. Selkirk(1982)에 제시된 음절수형도는 다음과 같다.



## 2) 비단선음운이론의 수용과 국어 음운론

### (1) 자립분절음운이론의 수용과 국어 음운론

이 이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것은 李相億(1977)이지만, 그 이론을 적용한 국어의 음운연구가 시작된 것은 80년대 후기에 이르러서이다. 이처럼 그 이론에 의한 국어의 음운연구가 늦어진 것은 ‘이론’과 ‘자료’가 합치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자립분절음운이론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성조나 악센트 언어인데, 그 이론을 이해하는 연구자는 해당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해당 언어에 익숙한 연구자는 그 이론이나

해당 언어의 기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립분절음운이론에 의한 국어 음운연구로는 李惠淑(1985), 이병건(1986), 정인교(1987), 李東華(199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동남방언의 성조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李惠淑(1985)은 鄭然榮(1974)의 고성지역어와 許雄(1954)의 김해지역어의 성조자료를 자립분절음운론적으로 기술하고 분석 함으로써, 두 지역어의 기본 성조형을 설정하고, 그 기본 성조형으로부터 파생된 표면성조형들의 차이를 연결규칙과 일련의 음운규칙에 의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두 지역어의 기본성조형은 LHL이며 두 지역어에는 각각 무별표성조군과 유별표성조군이 있다. 그리하여 분절음층열(分節音層列)이 부여되면 다음과 같은 (1) 연결규칙과 (2) 음운규칙에 의해 각 어절의 표면성조가 도출된다.

#### (1) 연결규칙(경남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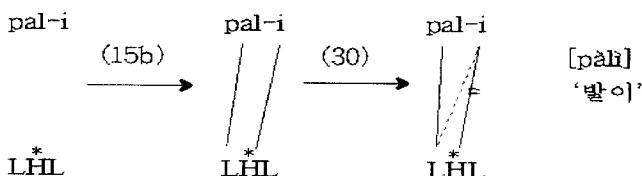
- 어휘목록(lexicon)에서 별표(\*) 표시되어 있는 모음 \*V은 별표 표시된 H와 최초로 연결된다.
- 별표 표시된 모음이 없으면 성조와 mora를 왼쪽부터 오른 쪽으로 1 대 1로 연결시킨다.
- mora의 수보다 성조의 수가 적을 때는 마지막 성조에 나머지 mora를 연결시키며, 성조의 수가 mora의 수보다 많을 때는 나머지 성조는 연결시키지 않는다.
- 연결되지 않은 성조는 표면형에서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 a는 개별언어고유의 연결규칙이고 나머지는 범어적 연결규칙임]

#### (2) 음운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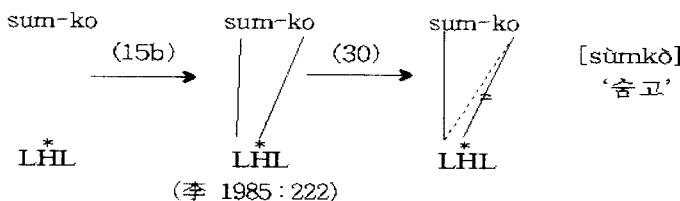
- 1음절어간 고조 하강규칙(두 지역어에 공통) [1음절의 어간이 L이고 어간에 통합하는 1음절의 어미가 H에 연결되면 H는 L로 하강한다]<sup>28)</sup>

28) a-d의 [ ] 안의 서술은 필자가 한 것임.

(3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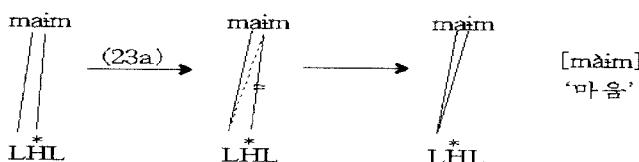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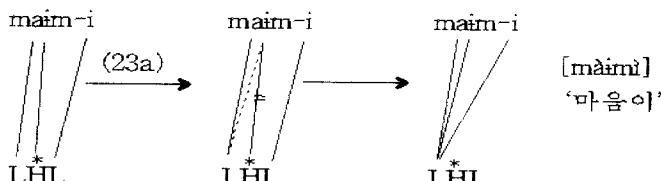
(李 1985 : 222)

⑤. 2음절어간 고조 하강규칙(고성지역어) [2음절의 명사어간의 성조가 LH이면, H는 L로 하강한다]

(24)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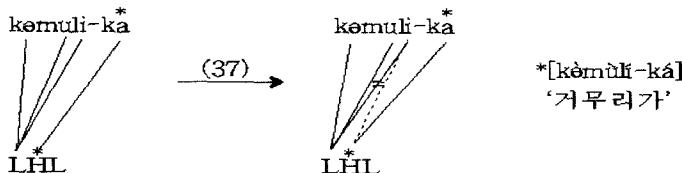
b.



(李 1985 : 219)

③. 저조상승규칙(김해지역어)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모음과 기본성조형의 H가 연결될 때에, 그 앞 음절의 L은 H로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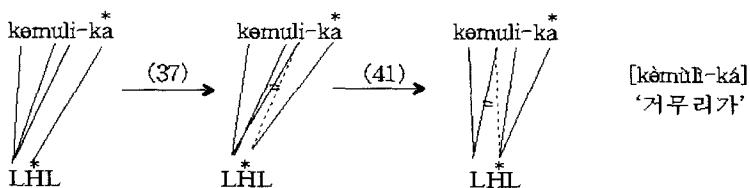
(40) a.



(李 1985 : 227)

④. 둘째저조 상승규칙(김해지역어) [4음절의 마지막 음절이 별표가 표시되는 경우, 규칙 ③에 의해 세 번째 음절이 H로 되는데, 다시 제2음절의 L은 H로 상승한다]

(42) a.



(李 1985 : 228)

이병건(1986)은 성조 자립 분절음(tonal autosegment)의 구조를 Goldsmith (1976)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것과 달리 함으로써, 자립 분절음층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성조기술을 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음을 논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립 분절음층에서 단 하나의 성조가 하나 이상의 성조 소지 단위(Tone-bearing Unit : TBU)를 자배할 수 있는 종래의 체계를 부정하고, 각각의 TBU가 그 자체의 성조를 가지며, 성조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빈 자리를 가진다는 체계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성조 언어를 핵성조 언어(피치 액센트 언어와 강세 액센트

언어)와 비핵성조 언어(참 성조언어)로 분류하고, 핵성조 언어는 매개변수를 언어마다 각기 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양극성 성조 부여(Polarity Tone Assignment) 규칙을 가지며, 비핵성조 언어는 성조 투사규칙(Tone Mapping Rule)을 가진다. 한편 해, 비핵성조 언어는 모두 보편적인 자립 분절음 전파(Autosegment Spreading) 규칙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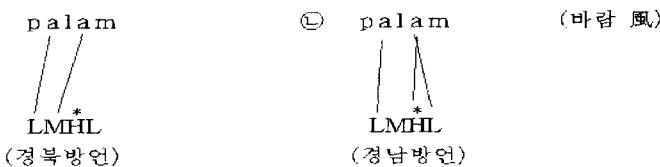
이 외에 이 연구에는 자립 분절음 전파 규칙, 상승조 하강 규칙, L(저조)-  
삭제 및 삽입 규칙, 첫 성조 하강 규칙, 자유 H(고조) 연결 규칙, 핵성조  
부여 규칙, OH(빈자리)-삽입 규칙, 부재 자질(Default) 규칙, H-말소 규칙,  
율동 규칙 등 많은 규칙이 설정된다.

이러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鄭然粲(1974)의 고성지역어 자료와 연구자의 출생지인 진양지역어 그리고 15세기 국어자료가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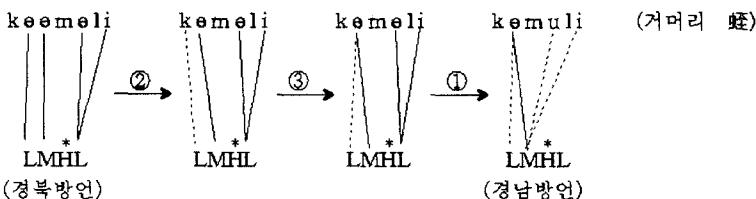
정인교(1987) 역시 대부분 기존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경상남북도를 포함하는 동남방언 전체의 성조현상에 대해 논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동남방언의 성조는 L(저), M(중), H(고)를 가지는 3단수평체계이며, ‘상승조’와 ‘하강조’는 표면형에서 실현된다.

동남방언의 기본성조형은 LMHL이며, 경북방언과 경남방언의 성조관계는 다음 규칙과 조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① 상승규칙(필자 命名) : 형태소 내부에서 어두 장음이 없으면 경북방언 성조 L과 M이 한 단계씩 상승하면 즉 M과 H로 되면 경남방언 성조가 된다. ② 어두 장음 삭제규칙 : 경북방언의 어두 장음(VV) 중 V 하나를 삭제시키면 경남방언의 성조형이 된다. ③ 적격조건 : i) 모든 성조는 적어도 하나의 성절적 요소와 연결되어야 한다. ii) 모든 성절적인 요소는 적어도 하나의 성조와 연결되어야 한다. iii) 연결된 선은 서로 교차하지 못한다.

#### (A) 규칙 ①의 예



## (B) 규칙 ①, ②와 조건 ③의 예



李東華(1990)도 현지조사에 의한 경상북도의 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경북방언의 성조체계는 L과 H의 2단체계이며, 종래에 '저장조'라고 하던 것을 L^L복합조다. 경북방언의 기조성조형은 L1형과 LOHLO형 2개로 설정되며, 각 어사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L1형은 하나 이상의 L로 구성되는 평탄한 성조형이고, LOHLO형은 H의 앞뒤에 L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돌출형의 성조형이다.

그러한 성조형에 의한 것 외에, 이 방언의 성조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적용받아 실현된다. 즉 이 방언에는 하나의 성조형 속에 2개의 H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① 어미의 첫음절이 H이고 어간말음절이 H이면 어간말의 H는 L로 되며(역행이화규칙), ② 어간이 HL로 끝나고 어미의 첫음절이 H이면, 어미의 H는 L로 된다(순행이화규칙). 그리고 ③ 복합조  $\overline{L}$ 을 가진 동사 1음절어간 뒤에 H를 가진 어미가 통합하면, 어미의 H는 L로 되며(순행동화규칙), ④ L을 가진 명사 1음절어간과 L을 가진 쳐격어미 '-에'가 통합하면 어간의 L은 H로 되고  $\overline{L}L$ 을 가진 동사가 L을 가진 모음어미와 통합하면(단 어간말이 'ㄹ'로 끝나면,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한정됨) 어간의  $\overline{L}L$ 은 H로 된다(고조화규칙). 한편 ⑤ 동사에서 H를 가진 어간말 개음절이 '으시, {노,나}, 네' 등 L을 가진 어미와 통합하면, 어간말의 H는 L로 되고, H를 가지고 원순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1음절 어간과 L을 가진 어미 '아Y'와 통합하면, 어간의 H는 L로 된다(저조화규칙). ⑥ L을 가진 '이'로 끝나는 동사어간과 '어'로 시작되는 어미와 통합하여 활음형성과 축약의 과정을 거쳐  $\overline{L}L$ 이 되면, 두 번째 L은 어미의 L 앞에서 탈락한다(단순화규칙).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실제 예는 다음과 같다.

①

$\textcircled{1}$ mak + ket + ta	$\textcircled{2}$ mak + ket + t̪i + la	
H H L	H H H L	기저성조
L	L	역행이화규칙
	L	역행이화규칙
L H L	H L	표면성조

(李 1990 : 61)

②

masi	+	t̪i	+	la	
H L	H	L			기저성조
	L				순행이화규칙
H L	L	L			표면성조

(李 1990 : 65)

③

$\textcircled{1}$ ka:m + manto	$\textcircled{2}$ ka:l + t̪ila	
＼＼	＼＼	
L L	H L	기저성조
	L	순행동화규칙
L L	L L	표면성조

(李 1990 : 67)

(4)

⑦ pom + e	⑧ sa:l + ato
	/ \
L L	L L L L
H	H
L L	L L

기저성조  
고조화규칙(ᅳ)  
표면성조

(李 1990 : 71)

(5)

⑨ ka + ne	⑩ ka + i s i + ko
H L	H L L L L
L	∅
L L	L L L L L

기저성조  
'으'삭제규칙  
저조화규칙(ㄱ)  
표면성조

(李 1990 : 73)

(6)

⑪ pulli + ato	⑫ konchi + ato
L L L L	L H L L L
pull e to	konch e to
/	/
L L L L L	L L L L L
∅	∅
L L L	L L L

기저성조  
활음형성, 음운축약  
단순화규칙  
표면성조

(李 1990 : 80)

## (2) 음절음운이론의 수용과 국어 음운론

국어의 표기 단위가 음절(音節)로 되면서, 음절은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서구의 음운이론이 수용되면서, 음절은 음운단위로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더 많은 관심이 분절음에 기울

여져 왔다(姜昶錫 1990: 109-110). 그리하여 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국어의 음절은 음성학적 설명이나 음절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에 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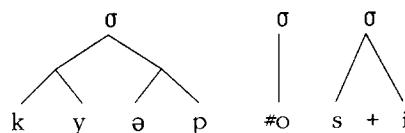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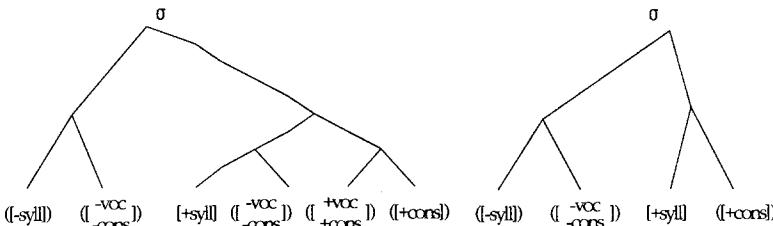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국어의 음절에 대한 관심은 음절구조와 다른 음운현상들과의 관련성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확대는 음절을 음소의 단선적 결합체가 아니라 계층적 결합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음절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음절음운이론의 수용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이론에 의한 국어의 음운연구로는 Young-Key Kim-Renaud (1975a), 이병건(1981) 등과 宋喆儀(1982a), 姜昶錫(1984)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Young-Key Kim-Renaud(1975a: 102-195)는 ‘음절’을 음운론의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국어의 음절말에서 발생하는 ‘폐쇄음의 중화(=평폐쇄음화), ㅎ→ㄷ, 경음화, 자음군단순화, 합성어 경계에서 발생하는 음운교체, 유성자음 뒤에서의 경음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Young-Key Kim-Renaud(1975a: 272-89)는 ‘음절’을 음운론적인 것과 음성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음운론적 음절의 구조는 ‘(초) 중 (종)’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각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음절초에는 ‘ㅇ(ŋ)’ 이외의 자음이 올 수 있고, 음절중은 ‘모음’이나 ‘의(iy)’인데, ‘모음’ 앞에는 ‘활음(w, y)’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음절말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음운론적 음절이 음성으로 실현될 때에는 음성적 음절화과정을 거치는데, 음절경계(\$)는 ‘자음과 활음과 모음’의 연쇄체이면 ‘자음’ 앞에, ‘자음과 모음’의 연쇄체나 ‘활음과 모음’의 연쇄체이면 각각 ‘자음’과 ‘활음’ 앞에, 그 외의 경우에는 ‘모음’ 앞에 삽입된다.

이병건(1981)은 Goldsmith(1976)과 Kahn(1976) 등의 이론을 도입하여, 후기 중세국어에서 어간말 모음이 부사형어미 ‘아Y’나 의도법의 ‘(오,우)’ 앞에서 탈락한 뒤에 어간말 음절초의 ‘ㄹ’과 ‘△’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현상의 설명을 위하여 중세국어의 음절 틀을 제시하고, 이 틀에 제약을 지우는 음소배열제약(phontactic constraint) 즉 ‘ㄹ’과 ‘△’은 뒤따르는 ø 앞에서는 음절초성이 될 수 없다는 제약을 설정했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음절은 음성적인 음절이며, 제시하고 있는 음절 틀

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음절의 계층적 구조에서, 활음은 음절초 자음에 종속시키고, 모음은 음절말 자음에 종속시키고 있다.<sup>29)</sup>



예. ‘겹웃이’

(이 1981 : 4)

宋喆儀(1982a)도 음절을 음성적인 것과 음운론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음성적인 음절은 음절말에 최대로 하나의 자음만 가능하지만, 음운론적인 음절은 최대로 두 개의 자음이 가능하다. 음절말 자음군이 허용되지 않는 음성적 음절구조상의 제약 때문에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고 기저에서의 자음군의 편재현상이 있게 된다고 보았다.

姜昶錫(1984)는 음절구조의 각 위치별 특성과 각 음소들의 상대적 강도를 규정하여 여러 음운현상들의 본질적 동기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국어의 음절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데, 음절초 자음과 음절의 핵모음은 동등한 층위를 가지지만, 활음과 음절말 자음은 핵모음에 종속된다. 자음의

29) ‘음절’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이병건(Lee, Byung-Gun 1982)에도 제시되었는데, 이 논문은 1981년의 SICOL에서 구두로 발표된 것이다.

분포 제약 현상은 개별적인 음소연결의 제약이 아니라 음절구조 제약의 일종이며, 음운현상은 음절구조의 제약이 전제된 뒤에 음운규칙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 3 어휘음운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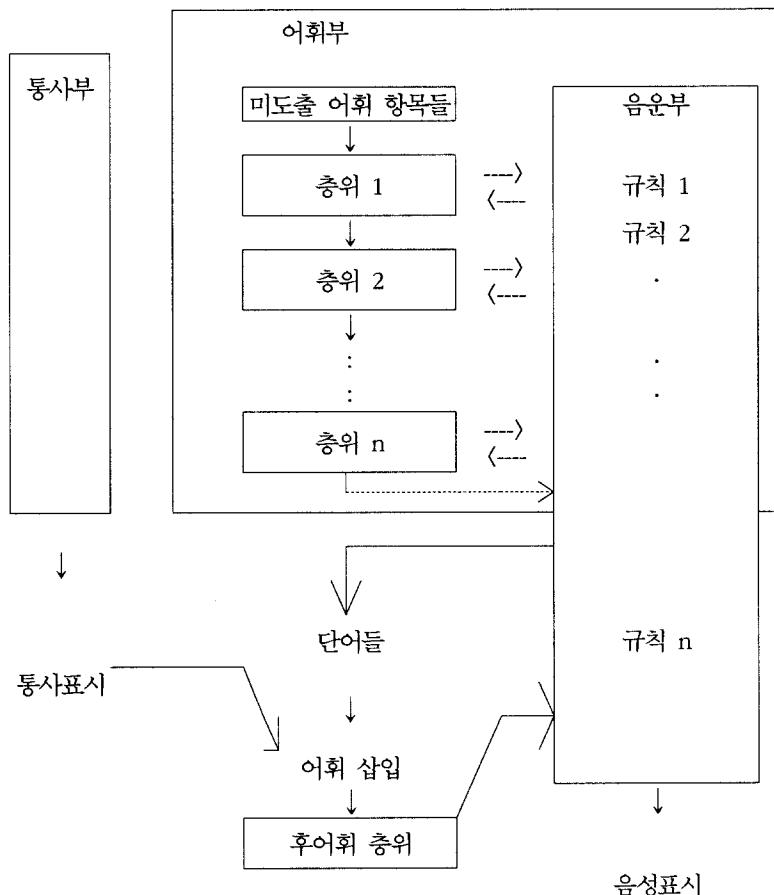
#### 1) 어휘음운이론의 개관

어휘음운이론은 문법의 조직(organization)에 대한 이론이다. 어휘음운론은 음운론과 형태론과 어휘부(lexicon)의 상호관계를 취급한다. Mohanan (1982)와 Kiparsky(1982)에 의하면,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어휘부는 몇 개의 순서지어진 층위로 구성되는데, 각 층위에서 형태규칙과 음운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음운규칙이 있게 된다. 하나는 어휘부 안에서 적용되는 규칙(어휘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부의 출력에 적용되는 규칙(후어휘규칙)이다. 이 이론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층위 순서 가설(the Stratum/Level Ordering Hypothesis), 팔호삭제 규약(the Bracket Erasure Convention), 규칙의 순환성(the cyclicity of rules)과 여타 조건(the Elsewhere Condition)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형태론적 과정과 많은 음운론적 과정은 어휘부에서 이루어진다. 음운규칙은 어휘규칙(lexical rules)과 후어휘규칙(postlexical rules)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형태규칙(morphological rules)과 상호작용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그렇지 않다.

모든 어휘규칙은 어휘부 내에 위치하며, 모든 후어휘규칙은 통사규칙이 적용된 다음 층위인 별도의 음운부 내에 위치한다. 그리고 어휘규칙은 단어 내에서만 적용되는데 반하여, 후어휘규칙은 단어보다 큰 구성요소에 적용되며, 어휘규칙은 모든 후어휘규칙에 선행하고 순환적인데 반하여, 후어휘규칙은 어휘규칙 뒤에 적용되고 한 번만 적용되는 비순환적이다. 또 어휘규칙은 다른 어휘규칙에 대해서 이접적 순서를 가지며 파생된 환경에만 적용되는데 반하여, 후어휘규칙은 어휘규칙에 대해 연접적 순서로 적용되며 단어 경계를 넘어서 적용된다.

어휘음운이론에서 어휘목록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안상철(1985a: 12)

## 2) 어휘음운이론의 수용과 국어 음운론

Kiparsky(1982a)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되고, 이어서 Mohanan(1982)와 Kiparsky(1982b)가 국내에 보급되면서, 국내의 음운론자들이 이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어 음운론에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국

내의 음운론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준 것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된 학위 논문, 김영석(Kim, Young-Seok 1984)와 안상철(Ahn, Sang-Cheol 1985a)과 김종미(Kim, Jong-mi 1986) 등이 국내에서 출판되면서부터라 하겠다. 물론 그 사이에 국내에서도 그 이론에 의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김수곤(1985)이 그에 해당한다.

김영석(1984)는 ① 국어의 형태론과 관련된 현상을 및 ② 국어의 음절구조와 그에 관련된 형태음운현상들에 대한 연구다. ①은 활용 형태론과 파생 형태론이 어휘부 내에서 적절히 실행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②는 각종 형태 규칙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므로, 층위만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안상철(1985a)는 국어의 단어 형성과정과 자음 관련 음운현상 및 모음 관련 음운현상을 대상으로, 주로 어휘음운이론의 틀에서, 형태론적으로 제약된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국어의 어휘부는 순서지어진 4개의 층위로 구성되는데, 주종어(主從語)의 형성은 층위 1에서, 병립어의 형성은 층위 2에서, 파생은 층위 3에서, 활용과 곡용은 층위 4에서 일어난다.

이와는 달리, 김수곤(1985)는 국어의 어휘부가 순서지어진 3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파생은 층위1에서, 복합어형성은 층위 2에서, 굴절은 층위 3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한편 김종미(1986)은 형태론은 어휘부 내에 있고, 어휘부와 통사론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어휘음운이론의 기본 가설을 부정하고, 형태론 중의 많은 것이 통사론에서 일어나며, 어휘부와 통사론이 둘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어의 형태·통사론의 여러 사실로부터 입증하려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 힘입어 80년대 말부터 국어 음운론자들에 의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박창원(1989), 한선희(1990), 곽성수(1992), 최은영(1992), 김무림(1993), 김정우(1994a, b), 최정순(1994)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의 상당수는 어휘음운이론의 틀에 맞추어 국어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국어의 여러 사실을 근거로 하여 어휘음운이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있다. 예컨대 박창원(1989)는 국어의 어휘부

를 잠정적으로 2개의 층위로 설정하고, 복합어 및 접두파생어의 형성은 층위 1에서, 접미파생어 및 굽절어 형성은 층위 2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국어에서의 층위이론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았다.

#### IV. 구미의 음운이론의 수용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필자는 구미의 음운이론 즉 구조주의 음운이론과 생성음운이론 중 국어의 음운연구에 영향을 미친 것을 대상으로, 그들 각 이론을 개관하고 그 이론의 수용과 그에 의한 국어의 음운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그들 이론의 수용이 국어 음운론 연구에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히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구조주의 음운이론이 국어 음운론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음성’과 ‘음운’을 구별하고 국어의 음운현상을 체계 속에서 파악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프라고 언어학의 음운이론은 체계에 내재하는 대립관계, 특히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음운상호간에 존재하는 내적(관계) 법칙을 발견하는 데 기여했다. 더욱이 음운의 변화가 음운체계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통시음운론의 기본 명제는 음운변화나 음운현상을 음운체계와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하게 했다. 그와 함께 기술언어학의 음운이론은 과학적인 언어분석 방법을 통하여 음운목록을 확인하고 형태소 내의 음운결합의 유형과, 형태음소론적인 기술(記述)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국어 음운론이 국어음운의 내적 법칙이나 외적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그 둘을 다 연구주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프라고 언어학의 음운이론과 기술언어학의 음운이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그것은 국어 음운론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들 이론이 표방(標榜)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되는 현재의 언어 연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음운론의 경우에는 현대국어의 공시음운론 연구보다는 대부분 중세국어에 대한 공시음운론이나 국어의 통시음운론 연구에 그들 이론이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중세국어에 대한 공시음

윤론적 연구나 국어의 통시음운론적 연구가 훌륭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국어 음운론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상대적으로 현대국어 음운론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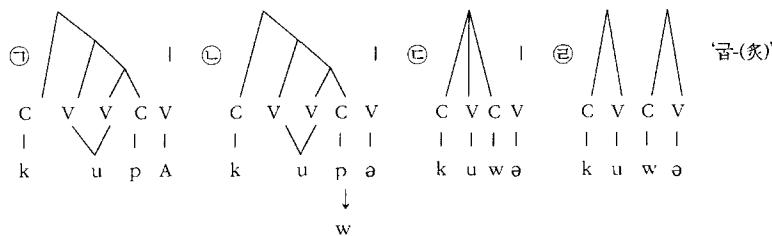
한편 생성음운이론의 수용은 문헌어에 의한 국어의 음운연구에서 현대국어에 대한 음운연구로 주제를 바꾸게 했다. 그리하여 그 전에는 거의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현대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정확한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단선음운이론의 수용으로, 국어의 분절음이 실현하는 음운현상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고가 형성되었으며, 그와 함께 수많은 음운규칙을 발견함으로써 국어의 많은 음운현상이 설명될 수 있었다. 이 점이야말로 생성음운이론이 국어 음운론에 기여한 최고의 것이라 하겠다.

비단선음운이론의 경우도, 자립분절음운이론은 국어의 성조현상의 기술과 설명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음절음운이론은 음절이 국어의 음운현상의 기술이나 설명에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서 국어의 음운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비단선음운이론이 국어의 음운연구에 기여한 점은 많다고 할 수 없다. 원래 비단선음운이론이 초분절음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지, 분절음의 음운현상에 대한 설명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그 이론의 적용에 따른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단선음운이론에 의한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이 기존의 것보다 낫다는 것은 기존의 이론으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기존의 이론에 의해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이론과 방법에 의한 연구 결과가 근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방법에 의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 그러한 연구 결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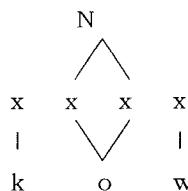
우리는 그러한 예를 비단선음운이론에 의한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편의를 위해서 ‘ㅂ’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한 Sang-Cheol Ahn(1985)와 Hyang-Sook Sohn(1985)의 해결안을 보기로 한다. 먼저 Sang-Cheol Ahn(1985: 126-29)는, CV음운이론과 어휘음운이론을 배경

으로, ‘ㅂ’정칙동사와 구별하여 ‘ㅂ’변칙동사의 기저형은 어간말음절이 장모음(VV)을 가진다고 한다. 그 어간에 ‘어/아(A)’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V 앞에 V가 있으면 ‘ㅂ’이 w로 되고, 음절말이 ‘공명성’을 가지고 그 앞에 두 개의 모음이 있으면, 음절말 앞의 모음이 탈락하며, 다시 재음절화에 의해 음성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Ahn 1985 : 129)

이와는 달리, Hyang-Sook Sohn(1985: 177-79)은, 음절음운이론 특히 모라음운이론과 어휘음운이론 그리고 불완전명시이론을 배경으로, ‘ㅂ’정칙동사는 어간말음절이 단모음을 가지며 ‘ㅂ’으로 끝나는데 반하여, 변칙동사의 기저형은 어간말음절이 장모음을 가지며 w로 끝난다고 한다(아래 그림 참조). 그에 의하면, ‘ㅂ’변칙동사의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w는 N'마디에 연결되고 범주자질 [-N](=비음절핵)을 배정받는다. 그리하여 w는 [+원순성]을 가지는 것으로 표시되며, 그 결과 ‘ㅂ’으로 음성실현된다.



‘굽-(麗)’ [x는 CV층열에 해당됨]

위의 두 해결안은 단선음운이론에 의한 해결안에 비하여 그 설명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Sang-Cheol Ahn(1985)에 제시된 ‘ㅂ’변칙동사의 기저형은 3.1.2.2에서 논의된 Young-Key Kim-Renaud (1975a)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며, Hyang-Sook Sohn(1985)에 제시된 것은 金鎭宇(1971b)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비단선음운이론에 의한 그러한 해결안은, 崔明玉(198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선음운이론에 의한 해결안이 가진 것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이다. 국어에서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은 자음체계의 변화로 인한 어간의 재구조화 결과이므로, 음운이론과 방법을 달리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단선음운이론의 등장 이후, 국어 음운론에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어휘음운이론도 필자의 견해로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 이론은 종래의 단선음운이론에서 설명이 불가능했던 형태음소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어휘부의 기능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그 어휘부라는 것이 문제다.

우선 어휘부 자체의 실재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3.3.2의 논의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국어의 어휘부가 몇 개의 순서지어진 층위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며, 심지어는 어휘부에 층위 설정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휘부 내에서 일어나는 어형성 과정에 적용되는 어휘규칙이 화자의 언어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추상음운론자들이 추상적인 기저음소와 규칙적용 순서에 의해 음운현상을 설명할 때에, 구체 음운론자들이 반박했던 것과 동일한 반박을 어휘음운론자들에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어휘부에서 진행되는 어형성 과정이 공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어휘부에서 적용되는 어휘규칙이 화자의 언어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실체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어형성 과정과 거기에 적용되는 어휘규칙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어휘음운론자들은 합성어 ‘냇가’는, 이 이론에 의하면, 두 개의 명사 ‘내(川)’와 ‘가(邊)’가 두 명사 사이에 ‘사이 시옷’ 또는 ‘ㄷ’을 삽입하는 공시적 어휘규칙이 적용되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냇가’는 ‘내(川)

의 가(邊)’를 의미하는 굳어진 단어다. 그것은, ‘냇가에서 논다, 냇가로 가자, 나는 냇가가 좋다’ 등에서 보듯이, 언제나 한 덩어리로 사용된다. ‘냇가’를 ‘내’와 ‘가’로 분해한다면, ‘천변(川邊)’이라는 의미는 파괴되고 마는데, 이 사실은 ‘냇가’가 하나의 형태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냇가’가 사전에 실려 있다는 것도 그것이 이미 과거에 형성된 것임을 공인(公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 시옷’ 또는 ‘ㄷ’을 삽입하는 규칙은 공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통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휘부 내에서 어휘규칙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어형성 과정이 통시적인 사실이라면, 어휘음운이론은 공시적인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처럼 어휘음운이론에 의한 설명이 비실체적인 어휘부의 존재를 가정하는 가설의 단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실체적 증거가 없다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러한 연구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 V. 결 론

필자는 3에서 구미의 구조주의 음운이론과 생성음운이론을 개관하고, 그들 이론이 국어의 음운연구에 수용되는 과정의 고찰과 그들 이론에 의한 국어의 음운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4에서는 국어의 음운연구에 미친 구미의 음운이론의 기여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구조주의 음운이론은 국어의 음운을 체계 속에서 파악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기여했으나 음운현상의 기저실재와 규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성음운이론 그 중에서도 표준생성음운이론은 국어의 음운현상의 기제에 대한 관찰을 정밀하게 하고 그 현상의 기저실재와 많은 음운규칙을 발견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기여했으나 기저의 추상성을 지나치게 인정함으로써, 화자의 언어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러한 추상음운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구체음운이론이라 하겠는데, 그 이론은 분절음소의 탈락이나 축약 등에 따른 초분절음소의 음운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초분절음소의 현상에 대해서 구체음운이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비단선음운이론이지만, 그 이론은 실제로 국어의 초분절음소의 음운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분절음소의 음운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어휘음운이론은 구체음운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분절음소의 음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휘부의 실재를 입증할 수 있는 실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그 동안에 그 이론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국어의 음운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휘부의 실재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이론에 의한 연구 결과는 가설적인 단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를 그 이론은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어의 음운연구에서 지적된 구미의 음운이론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은 그러한 이론이 일반언어학적인 것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지적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연구자들이 국어의 음운현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음운이론이라고 하여도,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언어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언어자료에 대한 설명은 옳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자료의 불완전은 자료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머리 속에 있는 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직접적인 자료조사나 자료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못 조사된 기준의 자료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불완전함이 생겨나는 것이다. 국어자료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게 되면 지금 까지 연구자들이 대상으로 한 자료가 불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끝으로 국어의 음운연구가 구미의 음운이론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에서 벗어나 그것을 수용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독자적인 음운이론을 창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어의 자료에 대한 넓고 깊은 관찰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언어이론은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수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언어이론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언어이론이 언어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의 이론보다 우리 언어자료에 대한 넓고 깊은 관찰과 이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외국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려는 과정에서 국어 음운론(넓게는 국어학)이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로(1977), 「한국어 구개음화의 생성음운론적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 姜昶錫(1982), 「현대 국어의 형태소 분석과 음운 현상 : 활용」, 곡용에서의 '으 ~의'를 중심으로, 『국어연구』 50.
- 姜昶錫(1984), 「國語의 音節構造와 音韻現象」, 『國語學』 13.
- 姜昶錫(1990), 「音節」,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 編, 東亞出版社)
- 곽성수(1992), 「어휘음운론의 계층 이론」, 『논문집』 13:1, 경성대.
- 국웅도(1973), 「Double consonant base verbs in Korean」, 『語學研究』 9-2.
- 김공언(1978), "Vowel system of Korean revisited", In C. 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us: Hornbeam Press.
- 김기호(Kim, Kee-Ho 1987)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Distinctive Features :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Hanshin Publishing Co.
- 김무림(1993a), 「국어에 있어서의 어휘음운론」, 『인문학보』 15, 강릉대.
- 김무림(1993b), 「국어의 음운부와 어휘부」, 『어문논집』 32, 고려대.
- 金敏洙(1962), 「國語의 音素와 그 排列」, 『文理論集』(고려대) 6.
- 金敏洙(1989), 「初期 變形文法의 導入過程에 대하여」, 『人文論集』(고려대) 34.
- 金芳漢(1964), 「國語母音體系의 變動에 關한 考察」, 『東亞文化』(서울대) 2.
- 金芳漢(1988), 『歷史-比較言語學』, 서울: 民音社.
- 김석득(1960), 「음운분석론」, 『한글』 126.
- 김석득(1962), 「형태음소론 소고」, 『國語學』 1.
- 김석득(1978), 「구개음화와 기저모음 및 어휘소」, 『눈뫼 허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과학사.
- 金手坤(1976), *Palatalization in Korean*, 서울: 光文社.
- 金手坤(1976), 「ㄴ의 구개음화 규칙」, 『어학연구』 12:2.
- 金手坤(1977a), 「ㅂ-변칙동사류의 음운론적 의의」, 『언어』 2:2.
- 金手坤(1977b), 「ㅂ'變則動詞類의 音韻論的 意義」, 『언어』 2-2.
- 金手坤(1978a), 「국어의 기저유음」, 『김영희 송수기념논총』.
- 金手坤(1978b), 「현대국어의 움라우트현상」, 『국어학』 6.
- 金手坤(1985), 「어휘 형태음운론의 이해」, 『어학』 12.
- 김영송(1971), 「국어음운의 변형구조 : 변형생성문법이론에 의한 국어음운구조

- 의 기술」, 『어문학』 25.
- 金完鎮(1957), 「原始國語의 子音體系에 對한 研究 : 語頭有聲脣音 b-를 走로 하여」, 『國語研究』(서울대) 3.
- 金完鎮(1963a),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對하여」, 『西江大學 論文集』 1.
- 金完鎮(1963b),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 金完鎮(1964),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 4.
- 金完鎮(1971a), 『國語 音韻體系의 研究』, 서울: 一潮閣.
- 金完鎮(1971b), 「音韻現象과 形態論의 制約」, 『學術院論文集』 10.
- 金完鎮(1972), 「形態論의 懸案의 音韻論의 克服을 為하여 : 이른바 長母音의 境遇」, 『東亞文化』(서울대) 11.
- 金完鎮(1978), 「國語學研究의 動向과 課題」, 『韓國의 民族文化』(韓國精神文化研究院) 1.
- 金完鎮·李秉根(1979), 「國語學研究의 方向設定을 위한 基礎的 研究(音聲學·音韻論)」, 『冠岳語文研究』 4.
- 김윤경(1962), 「해방 뒤 국어학계의 동향」, 『한글』 129.
- 김정우(1994a), 「국어의 어휘부와 어휘음운론」, 『개신어문연구』 10.
- 김정우(1994b), 「음운현상과 비음운론적 정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金鎮宇(1967), 「Some phonological rules in Korean」, 『어문연구』 5.
- 金鎮宇(1970), 「음운론의 최근 문제들」, 『어학연구』 6:2.
- 金鎮宇(1971a), 「國語音韻論에 있어서의 共謀性」, 『語文研究』 7.
- 金鎮宇(1971b), 「所謂 變格用言의 非變格性에 關하여」, 『韓國言語文學』 8·9.
- 金鎮宇(1972), 「Two phonological notes : A-sharp and B-flat」, In M.K. Brame ed. *Contributions to Generative Phonology*. Austin: Univ. of Texas Press.
- 金鎮宇(1973), 「Adjustment rules in phonology」, In Kenstowics and Kisselberth ed. *Issues Phonological in Theory*. The Hague: Mouton.
- 金鎮宇(1973), 「Gravity in Korean Phonology」, 『語學研究』 9·2.
- 金鎮宇(1976), 「國語 音韻論에 있어서의 母音音長의 機能」, 『語文研究』 9.
- 金鎮宇(1978), 「‘Diagonal’ vowel harmony? : Some implications for historical phonology」, 『國어학』 7.
- 金鎮宇(1979), 「Neutralization in Korean revisited」, 『언어』 4:2.

- 金鎮宇(1981), 「Abstractness and distinctness in Korean phonology」, 『제1회 한국국제학술회의 논문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鎮宇(1981), 「시조의 운율구조의 새 고찰」, 『한글』 173-174.
- 金鎮宇(1988), Sojourns in Language(言語小典) I, II, 서울: 탑출판사.
- 金鎮宇·都守熙(1980), 「Rule Reordering in Middle Korean Phonology」, 『어학 연구』 16:1.
- 김진우·안상철 (1985) Vowel harmony in Korean : a multi-tiered and lexical approach, In G. Youmans and D.M. Lance eds, *Linguistics and poetics : In memory of Roman Jakobson*, Columbia, MO: Univ. of Missouri.
- 김차균(1971), 「변칙용언연구」, 『한글』 147.
- 김차균(1976), 「국어의 자음접변」, 『언어학』 1.
- 김차균(1977), 「경상도방언의 성조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
- 김차균(1978), 「정도 자질과 국어의 음운 규칙」, 『눈뫼 허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과학사.
-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1977, 서울대 박사논문.)
- 김차균(1981), 「음절이론과 국어의 음운규칙」, 『논문집』(충남대) 8·1.
- 김혁 (1977), 「국어 음운의 양여성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 南基心(1977), 「국어학이 걸어온 길」, 『言語科學이란 무엇인가』(李廷玟·李秉根·李明賢 편), 서울: 문학과 지성사.
- 都守熙(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현상」, 『방언』(정문연) 5.
- 文洋秀(Moon Yang-Soo 1973), *A Phonological History of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 Texas at Austin.
- 文洋秀(1974), 「한국어의 음운론적 문제점」, 『학술원논문집』 13.
- 文洋秀(1978), 「Some Aspects of Korean Stop Consonants」, 『언어학』 3.
- 文洋秀(1991), 「미국학계의 음운이론의 변천」, 『언어학 연구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文洋秀(1996), 「言語學 研究 50年의 回顧와 展望」, 『서울大學校學問研究 50年(I) : 總括·人文·社會科學』, 서울大學校研究處.
- 文孝根(1974), 『韓國語 聲調의 分析的 研究』, 서울: 世宗出版公社.
- 박기완(1989), 「자립분절음운론에 입각한 자음접변 연구」, 『논문집』 29. 건국대 대학원.
- 박의근(1975), 「한국어 음운의 생성음운론적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朴昌遠(1982), 「子音群 分類와 子音資質(1), : 子音接變을 중심으로」, 『冠嶽語文研究』(서울대) 7.
- 朴昌遠(1989), 「음운 규칙과 단어 형성의 층위 : 어휘음운론적인 접근과 그 문제점」, 『二靜 鄭然粲先生 回甲紀念論叢』, 텁출판사.
- 박창해(1963), 「국어음운 및 음운 배합론 연구」, 『연세논총(인문과학)』 2.
- 백두현(1982a), 「금릉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문학과 언어(경북대) 11.
- 백두현(1982b), 「성조와 움라우트 : 성주·금릉지역어를 중심으로」, 『어문론총』(경북대) 16.
- 宋喆儀(1977), 「派生語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38.
- 宋喆儀(1982a), 「國語의 音節問題와 子音의 分布制約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서울대) 7.
- 宋喆儀(1982b), 「音韻現象의 記述을 精密化시킨 國語音韻論 研究에 대하여」, 『韓國學報』 27.
- 宋喆儀(1985), 「음운」, 『국어국문학연구사』, 서울: 도서출판 우서.
- 申承遠(1982), 「義城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 영남대 석사논문.
- 安秉禧(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의 研究」, 『國語研究』(서울대) 7.
- 안상철(1988), 「어휘음운론 서설」, 『언어연구』 8, 경희대.
- 안상철(1989), 「사역·수동·파생과정에 적용되는 몇가지 음운규칙」, 『二靜 鄭然粲先生 回甲紀念論叢』, 텁출판사.
- 유영미(Cho-Yu, Young-mee 1987), 「Phrasal phonology of Korea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 Hanshin Publishing Co.
- 이강로(1961), 「國語 形態音韻의 變動에 對하여」, 『한글』 128.
- 李基文(1962), 「中世國語 特殊語幹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 李基文(1968), 「母音調和와 母音體系」,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서울: 乙酉文化社.
- 李基文(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13.
- 李基文(1977), 「국어사 연구가 걸어온 길」, 『나라사랑』 26.
- 李基文(1979), 「中世國語 母音論의 現象과 課題」, 『東洋學』 9.

- 李基文(1980), 「國語學의 發展을 위한 提言」, 『民族文化 研究의 方向』, 대구: 嶺南大 出版部.
- 李東華(1989), 「국어 자립분절음운론의 연구 방향」, 『語文學』 50.
- 李東華(1990), 「경북방언 성조의 자립분절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 李東華(1996), 『최근 이론 중심의 국어 음운론』, 대구 : 문창사.
- 이병건(1976), 「음운론의 전체 규칙 : 중세 한국어에서의 증거」, 『한불문화』(연세대) 3.
- 이병건(1976), 『현대국어의 생성음운론』, 서울: 일지사.
- 이병건(1977), 「현대 한국어의 구개음화 규칙」, 『언어』 2:1.
- 이병건(1978), 「국어의 음운변천 : 주로 현대 국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3.
- 이병건(1979), 「이론바 거꾸로 떠이기 순서」, 『언어』 4:1.
- 이병건(1980), 「구개음화 규칙과 그 이론적 함축」, 『성곡논총』 11.
- 이병건(1981), 「중세 국어에 있어서 하나의 음소 배열 제약」, 『어학교육』(전남대) 12.
- 이병건(1982), "A well-formedness condition on syllable structure," in *Linguistics in the Calm Morning* 1. Hanshin Publishing Company.
- 이병건(1986), 「자립 자립분절음 음운론」, 『語學研究』 22-3.
- 李秉根(1970), 「十究世紀 後期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 李秉根(1973), 「東海岸 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震檀學報』 36.
- 李秉根(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의 制約」, 『國語學』 3.
- 李秉根(1976), 「국어의 기저음운」, 『언어』 1:2.
- 李秉根(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 『國語國文學論文集(李崇寧先生古稀紀念)』, 서울: 塔出版社.
- 李秉根(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 李秉根(1981), 「유음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 李秉根(1982), 「음운론 연구 30년사」, 『국어국문학』 88.
- 李秉根(1986), 「發話에 있어서의 音長」, 『國語學』 15.
- 李相億(1977), 「自立分節音韻論과 國語」,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學論叢』, 서울: 탑출판사.
- 李相億(Lee, Sang-Oak 1978a), *Middle Korean Tonology*. Hanshin Publishing Co. (Ph.D.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at Urbana.)
- 李相億(1978b), 「Conspiracy in Korean phonology revisited」, In Chin-W. Kim

ed. *Papers in Linguistics. Korean Columbia, S.C.*: Hornbeam Press, Inc.

李相億(1979), 「국어 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에 대한 재론」, 『한글』 165.

李相億(1979), 「音調配定規則에 관한 두어 問題」, 『國語學』 8.

李相億(1992), 「生成音韻論」, 高永根 외 編, 『國語學研究百年史 IV』, 서울 : 一潮閣.

李崇寧(1939), 「朝鮮語 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11.

李崇寧(1940), 「♀ 音收」, 『震檀學報』 12.

李崇寧(1949), 「‘애, 에, 외’의 音價變異論」, 『한글』 106.

李崇寧(1954/55), 「15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的 發達에 對하여」, 『音韻論研究(再版)』, 民衆書館.

李丞宰(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研究』 45.

李丞宰(1982), 「形態素 境界의 音韻論의 機能에 대하여 : 求禮 地域語의 경우」, 『白影 鄭炳煥先生 還甲紀念論叢』, 新丘文化社.

이승환(1971), 「유추(類推, Analogy)의 생성음운론적 해석」, 『동방학지』 12.

이승환(1973),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생성음운규칙」, 『한글』 152.

이용재(1978), *Lenis Obstruent Fortition in Korean at Differing Levels of Acquisi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Texas at Austin.

李翊燮(1972),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3.

李蕙淑(Lee, Hei-Sook)(1966), 「Acoustic Transformational Cues for Korean Semi-Vowels」, 論叢(이화여대) 9.

李蕙淑(1968a), 「Lexical-feature redundancy rules of Korean」, 『語學研究』 4-1.

李蕙淑(1968b), 「구조주의와 변형생성이론에 있어서의 음운론」, 『한글』 141.

李蕙淑(1969), 「An Attempt of Reformulations of Phonological Features for Korean」, 『論叢(이화여대)』 13.

李蕙淑(1970a), 「변별자질 [high]에 대한 고찰」, 『한글』 146.

李蕙淑(1970b), 「生成音韻論에 依한 국어方言差에 對한 規則設定 및 方言相互間의 關聯性研究」, 『문교부학술연구보고서』 16(1969), 韓國文化研究院論叢(이화여대) 16-1

李蕙淑(1973), 「국어생성음운론의 시도」, 『논총(이화여대)』 21.

李蕙淑(1980), 「한국어의 겹받침」, 『언어』 5:2.

李蕙淑(1985), 「慶南方言 聲調의 自立分節 音韻論의 研究」, 『언어』 10-2.

- 李蕙淑(1986), 「국어의 삽입현상에 대한 음절음운론적 연구」, 『논총(이화여대)』 48.
- 李熙昇(1939), 「朝鮮 語學의 方法論 序說」, 『한글』 71.
- 田相範(Chun, Sang-Buom 1975),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田相範(1976a), 「음운론에 있어서의 경계 문제」, 『語學研究』 12:2.
- 田相範(1976b), 「현대국어에 있어서의 된소리현상」, 『언어』 1·1.
- 田相範(1977), 『生成音韻論』, 탑출판사. (개정판, 1980.)
- 田相範(1978a), “#-Deletion as a Phonological rule», In Kim, Chin-W.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 田相範(1978b), 「Phonological classification of [w] and [j]」, 『전제오선생회갑기 논문총』.
- 田相範(1987), 「Kiparsky의 어휘음운론」, 『語學研究』 23-3.
- 鄭國(Chung, Kook 1979), 「Some observations on the Loss of the bilabial fricative in Korean」, 『어학』 6.
- 鄭國(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 A Functional View*. Hanshin Publishing Ph.D. Co. dissertation, Univ. of Indiana.
- 鄭國(1982), 「실재적 기저음운」, 『語學研究』 19:2.
- 鄭然榮(1960), 「十五世紀 國語의 Tone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서울대)』 8.
- 鄭然榮(1968), 「慶南方言의 母音體系」, 『國語學論文集(단국대)』 2.
- 鄭然榮(1974), 「慶尙道方言 聲調研究」, 『國語學紀要(서강대)』 1.
- 정인교(1987), 「경상도방언 성조의 비단선적 음성·음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정인상(1982), 「통영지역어의 용언활용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방언(정문연)』 6.
- 조학행(1985), 「음운구조의 범주론적 분석(A categorial analysis of phonological structure)」, 전북대 박사논문.
- 최경애(1991), 「구개음화에 대한 음절음운론적 연구」, 『어문학연구(목원대)』 1.
- 崔明玉(1974), 「慶南 三千浦方言의 音韻論的 研究」, 『國語研究』 32.
- 崔明玉(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의 音韻現象」, 『國語學』 4.
- 崔明玉(1978), 「東南方言의 세 音素」, 『國語學』 7.
- 崔明玉(1979), 「東海岸方言의 音韻論的 研究 : 慶北 益德郡 寧海面을 중심으로」,

『方言(정문연)』 2.

崔明玉(1980), 『慶北 東海岸方言 研究 : 盈德郡 寧海面을 중심으로』, 民族文化叢書 4. 영남대출판부.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영남대출판부.

崔明玉(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 p-, s-, t-變則動詞를 中心으로」, 『國語學』 14.

崔明玉(1989), 「구미 언어학이론의 수용과 국어 음운론 연구 : 구조언어학이론과 생성음운론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구미이론』, 지식산업사.

崔明玉(1993), 「語幹의 再構造化와 交替形의 單一化 方向」, 『省谷論叢』 24.

최은영(1992), 「Postlexical Phonology의 제이론과 Predicate Tensing」, 『인문학 보(강릉대)』 14.

崔銓承(1980), 「規則再配列에 관한 몇가지 問題 : 단모음화와 i-Umlaut」, 『일산 김준영선생 화갑기념논총』.

최정순(1994), 「어휘음운론과 국어의 몇 음운현상 : 이론적 한계와 대안 제시를 위하여」, 『서강어문(서강대)』 10.

한선희(1988), 「경상방언 성조의 자립분절음운론적 연구」, 『언어연구(경희대)』 8.

한선희(1990), 「A Prosodic-cum-Lexical Approach to Korean Tone Sandhi」, 『언어연구(경희대)』 9.

한선희(1990), 「Prosody in Lexical Phonology : Cases of English and Korean」, 『경희대 박사논문』.

한선희(Han,Sun-Hee) (1988), "An Autosegmental Approach to a Kyungsang Dialect : A Lexical Analysis," In Eung-Jin Baek ed, *Papers from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Hanshin Publishing Co.

許 雄(1954), 「慶尙道方言의 聲調」, 『崔鉉培先生 還甲記念論文集』.

許 雄(1955), 「傍點研究」, 『東方學志』 2.

許 雄(1957), 「국어의 음운」,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許 雄(1958a), 「파익(Pike)의 音素論」, 『新太陽』 8-3

許 雄(1958b), 『國語音韻論』, 서울: 正音社.

許 雄(1968), 「국어의 상승적 이중모음체계에 있어서의 빈칸」, 『李崇寧博士頌壽 紀念論叢』.

황희영(1972), 「생성음운론과 구조음운론」, 『승전어문학(승전대)』 1.

- Ahn, Sang-Cheol(1985a),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Ahn, Sang-Cheol(1985b), "i-deletion in Korean revisited," In Kuno et al. ed.,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 Ahn, Sang-Cheol(1986), "Syllabification process in Korean," In Armagost, J. L. ed., *Papers from the 1985 Mid-America Linguistics Conference*, Department of Speech 1-12, Kansas State Univ.
- Anderson, S. R.(1985), *Phon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Univ. of Chicago Press.
- Bloch, B. and G.L. Trager(1942),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Waverly Press.
- Bloomfield, L.(1933/61), *Language*,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Bright, W. ed.(199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New York / Oxford : Oxford Univ. Press.
- Cassirer, E.(1945), "Structuralism in Modern Linguistics," Word 1.
- Cho, Seung-Bog(1967),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with a Historical Analysis*. Almgvist Uppsala: & Wiksell.
- Choe, Jae-Woong(1985), *Syllabification and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in Korean*, Ms., Univ.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Choi, Eun-Young (1991) *Postlexical Phonology in Korean*. Hanshin Publishing Co. Ph.D. dissertation, The Univ. of Washington.
- Chomsky, N. and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and Row.
- Clements, G. & S. J. Keyser(1983), *CV Phonology : A Generative Theory of the Syllable*, Cambridge : MIT Press.
- Cook, Eung-Do(1973), "Double consonant base verbs in Korean," *이학연구* 9:2.
- Fischer-Jørgensen, E.(1975), *Trends in Phonological Theory : A Historical Introduction*, Akademisk Forlag.
- Gleason, Jr. H. A.(1955),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 York : Henry Holt and Company.
- Goldsmith, J.(1976), *Autosegme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 Ha, Chong-on(1969), "Generative Approach to Korean Phonology," 論文集(한  
양대).
- Halle, Morris(1962),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Word 18.
- Harris, Z. S.(1951),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lbig, G.(1974), *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 Hamburg :  
Rowohlt.(임환재 역(1984), 언어학사, 서울: 경문사)
- Hooper, J. B.(1972), "The syllable in phonological theory," *Language* 48.
- Hooper, J. 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Jakobson, R.(1931), "Principle of Historical Phonology," in A. R. Keiler(1972).
- Kahn, D.(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 in English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IULC.
- Keiler, A. R.(ed.)(1972), *A Reader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Kim, Chin-W.(1965), "On the autonomy of the tens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stops," *Word* 21.
- Kim, Chin-W.(1967), "Some Phonological Rules in Korean," 語學研究 5.
- Kim, Chin-W.(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3.
- Kim, Chin-W.(1970),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Papers in Linguistics* 2.
- Kim, Chin-W.(1985), "Phonology on the 'C-string'?", 언어 10:2.
- Kim, Gi Hwa (1992), "Lexical Phonology and Palatalization in Korean in  
English," 어학 19.
- Kim, Jong-mi(1985), "Outline of a Non-lexical Analysis of Morpho-Phonology  
of Korea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Hanshin Publishing Co.
- Kim, Jong-mi(1986), *PHONOLOGY AND SYNTAX OF KOREAN MORPHOLOGY*,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Kim, Kong-On and M. Shibatani(1976), "Syllabification Phenomena in Korean," *어학연구* 12:1.
- Kim, Kong-On(1978), "Vowel system of Korean revisited," In Chin-W. Kim ed. *Papers in Linguistics*. Korean Columbia, S.C.: Hornbeam Press, Inc.
- Kim, Kong-On(1978), "Vowel System of Korean Revisited," i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 Kim, Young-Key (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서울: 텁출판사.
- Kim, Young-Seok(1984), Aspects of Korean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Texas, Seoul: Pan Korea Book Corporation.
- Kim-Renaud, Young-Key(1973),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어학연구* 9:2.
- Kim-Renaud, Young-Key(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서울: 텁출판사(1974, Ph.D. dissertation, Univ. of Hawaii).
- Kim-Renaud, Young-Key(1975), "On h-deletion in Korean," *국어학* 3.
- Kim-Renaud, Young-Key(1976), "Palatalization in Korean," In Ho-Min Sohn ed. *Korean The language : its Structure and Social Projection*. Univ. of Hawaii.
- Kim-Renaud, Young-Key(1977), "Syllable-boundary phenomena in Korean," *Korean Studies* 1, Honolulu.
- Kim-Renaud, Young-Key(1978a), "The syllable in Korean phonology," In Chin-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 Kim-Renaud, Young-Key(1978b), "Semantic features in Phonology : Evidence from vowel in harmony Korean," *Korean Linguistics* 1.
- Kim-Renaud, Young-Key(1982), "i-Deletion in Korean," In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Hanshin Publishing Co.
- Kim-Renaud, Young-Key(1986), "Monophthongization of ii sequence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4.
- Kiparsky, P.(1979), "Metrical Structure Assignment is Cyclic," *Linguistic Inquiry* 10.
- Kiparsky, P.(1982a),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in I. S. Yang,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Kiparsky, P.(1982b), "From Cycling Phonology to Lexical Phonology," in H. van der Hulst and M.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Vol. I, Dordrecht: Foris.
- Lee, Pyung-Gun(1974), *Underlying Segments in Korean Phonology*,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Lee, Byung-Gun(1982), "A well-formedness condition on syllable structure," In ed. by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Lee, Chung-min(1973),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revisited," *Papers in Linguistics* 5.
- Lee, Ik-Hwan(1978), "Korean Vowel System," in *Korean Linguistics* 1.
- Liberman, M.(1975), *The Intonational System of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IT.
- Martin, S. E.(1951), "Korean phonemics," *Language* 27·4.
- Martin, S. E.(1952), *Korean Morphonemic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Martine, A.(1961/1971), *Élément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Armand Colin.
- Martinet, A.(1939), "Rôle de la corrélation dans la phonologie diachronique" *TCLP* 8.
- Mohanan, K. P.(1982), *Lexic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IULC, Bloomington
- Moon, Kyung-Hwan(1981), "Korean P-Irregular Verbs Revisited," *Linguistic Analysis* 8:4.
- Narahara(1985), "The accentuation system of the Korean Kyengsang dialect," In Kuno et al. ed.,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 Nida, E.(1949), *Morphology*, Ann Arbor.
- Pike, K. L.(1947a), *Phonemics*, Ann Arbor.
- Pike, K. L.(1947b), *Tone Languages*, Ann Arbor.
- Pulgram, E.(1970), *Syllable, Word, Nexus*, The Hague : Mouton.
- Ramsey, S. R.(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서울: 塔出版社.
- Saussure, F. de (1916/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Trans. by Wade

- Baskin), New York: The Philosophical Library.
- Selkirk, E.(1982), "The Syllable," H. Hulst & N. Smith(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Part II)*, Holland Dordrecht : Foris Publications.
- Skousen, R.(1975), *Substantive Evidence in Phonology : The Evidence from Finnish and French*, The Hague: Mouton.
- Sohn, Han(1977), "On the Regularization of the Irregular Verbs in Korean," *어학연구* 13:1.
- Sohn, Han(1978a), "Tensification in compound boundaries in Korean," In Chin-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ia, S.C.: Hombeam Press, Inc.
- Sohn, Han(1978b), "Tensification in Compound Boundaries in Korean," i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 Sohn, Hyang-Sook(1985), "Korean Irregular Verbs and Nonlinear Phonology,"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Hanshin Publishing Co.
- Sohn, Hyang-Sook(1987), *Underspecification in Korean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Tranel, B.(1981), *Concreteness in Generative Phonology: Evidence from Frenc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roubetzkoy, N.S.(1939/57), *Principes de phonologie*(=Grundzüge der Phonologie, *TCLP* 7.)
- Trubetzkoy, N.S.(1933), "La phonologie actuelle," *Journal de psychologie* 30.
- Trubetzkoy, N.S.(1935), *Anleitung zu phonologischen Beschreibungen*.
- Vennemann, T.(1972), "On the Theory of Syllabic Phonology," *Linguistische Berichte* 18.
- Whitman, J.(1985), "Korean clusters"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Hanshin Publishing Co.
- Wijk, N. van(1937), *Umfang und Aufgabe der Diachronischer Phonologie*, Paris.
- Wijk, N. van(1939), "L'étude diachronique des phénomènes phonologique," *TCLP* 8.
- Yang, Dong-Hwi(1978), "Consonant influence on duration of vowels in Korean," *언어* 3:1.